

I·SEOUL·U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정책보고서

미래를 품은 3.5년

2015.07-2018.1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홈페이지 | www.sehub.net 블로그 | <http://sehub.blog.me> 전화 | 02-353-3553

CONTENTS

02 여는글

04 특구사업 소개

07 특구사업 성과

미래를 품은 3.5년

22 관악구 |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

46 광진구 | 돌봄 서비스 기반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 성장 전략

62 노원구 | 되살림 사업연합을 통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82 마포구 | 홍대 앞 문화예술특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구축사업

110 성동구 | 협동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하다

132 성북구 |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미완의 실험’이라는 날갯짓이 지역을 바꾸는 ‘거대한 바람’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시민 참여 경제, 연대와 협력, 혁신적인 문제해결력이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향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삶터와 일터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적경제가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에 밀착합니다.

2015년 시작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2012년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들의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원 정책의 방향을 바꿔낸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을 총망라한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연대, 시민 주체의 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준비-예비-본 사업이라는 장기 사업으로 설계하고,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1년 단위의 사업 운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타 정책과 달리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가 쉽지만은 않듯이 이 사업 또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계획 승인의 단계에서 예산의 규모가 자치구당 약 5.5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준비사업 6개월, 예비 특구사업 3년을 거쳤지만 결국 실질적인 본 사업에는 이르지 못하고 예비 단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2~3년 간 등장하고 성장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과 자원만으로는 속도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6개 지역은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들여다보고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와 닿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노년층의 거주 비중이 높아 당면 과제로서 지역돌봄의 필요성을 실제로 확인했고, 어떤 지역은 산업보다는 주거 중심지로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절실함 속에서 주민 필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동의 사업을 만드는 과정 또한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알찬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집중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였지만 안타까울 정도로 그 속도가 더딘 곳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특구사업은 성과를 총망라하기보다는 하나의 지역 협동 비즈니스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구라는 서울 사회적경제의 실험은 25개 자치구로 확산되지 못하고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미완의 실험에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성장한 현장과 지역 주체들이 호응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자원과 주민의 참여를 연계하며 지속 확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악의 서로돌봄은 주민 주체들의 성장과 참여로 아이돌봄을 넘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지역 돌봄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광진의 통합돌봄서비스는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수립의 탄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의 기회로 특구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센터는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의 2.0을 생각해봅니다. 새롭게 지역 소비와 주민 생활 방식을 바꾸는 시민 체감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담은 제2의 도전입니다. 그 이름은 달라질지라도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3.5년 동안 사업을 이끌어 오신 사회적경제 조직과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도전과 실험에 계속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력,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만들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나 추진 역량이 우수한 기초 지자체를 우선투자 지구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민선 6기가 시작된 2015년 7월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8월 6개 자치구(관악, 광진, 노원, 마포, 성동, 성북)를 시작으로 2018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12개 자치구를 특구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역의 민간 네트워크, 민관 협력, 거점 공간 및 자산 등 지역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전략적 해법을 제시하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혁신 비즈니스를 추진했다.

2018년 12월 현재 6개 자치구가 준비사업 및 본사업(3년 6개월)을 완료했고, 5개 자치구에서 본사업 및 준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2012년 6월 자치구 단위로 시작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후 3년 동안 서울시 자치구에서 민관 공동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4개 자치구에서 380여개의 기관이 참여해 50여 개의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힘썼다. 이를 통해 구축된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의 경험은 특구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사회적경제 특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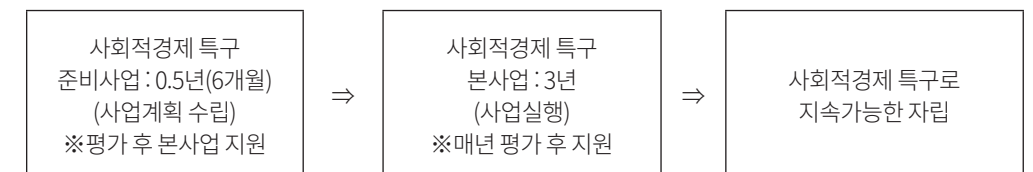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구

사회적경제 특구 목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증대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사회적경제 특구의 추진단계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 6개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단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지역 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한 지역 대상
 - 지역 자원 조사, 주체 형성, 본사업 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선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 3년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완료한 지역 대상
 - 사업 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관악구] 함께 키우는 공동체 육아 인프라 조성

관악구의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가치는 지역의 아이돌봄 이슈를 해결하고 행복한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악구 특구사업단은 ‘사회적 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를 창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 공간(관악점, 서원점, 행운점)을 만들고 부모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육아 육구를 파악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인적 자본을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정착시켰고, 협동형 어린이집인 ‘서봄어린이집’을 개관했다. 시간제 돌봄 사업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세상이 운영주체로 참여했고, 서봄어린이집 역시 지역주민들의 사업체인 서봄부모협동조합이 맡았다. 그 결과 지역공동체 육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주체를 양성했다. 또한 공동체 육아에 대한 거버넌스가 형성돼 지속가능한 서로돌봄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비즈니스 모델 개요

구분	내용
비즈니스 모델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핵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독박육아 해소• 엄마도 아이도 돌봄교사도 함께 성장• 행복한 육아 문화 만들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오감놀이, 숲놀이, 식생활교육과 만들기, 친환경 생활재 교육과 만들기, 부모나눔교육, 부모꿈교육, 사회적경제교육 등• 영유아 시간제 돌봄 서비스 : 기관방문과 가정방문)• 협동형 어린이집 운영 (인가시설)• 공동육아 공간 운영 (관악점, 서원점, 행운점)
고객 집단	영유아 주양육자
고객 및 시장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소통<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육아 공간에서 부모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부모들의 자발적인 후속모임 유도- 유관기관(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 온라인 소통<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주양육자 대상)- 페이스북 ‘사서봄’(지역사회 홍보)- 네이버 밴드 ‘서로돌봄’(마을공동체 홍보)- 네이버 카페 ‘서봄어린이집’(생태육아 어린이집 홍보와 모집)• 온라인 홍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맘스홀릭, 맘블리 등 관악구 주양육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와 협약, 프로그램 홍보- 관악구청 사회적경제 온라인 홍보관 활용
비용/ 수익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운영 : 조합비, 국가 보육료,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기금•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운영 : 조합비, 장소대관료 수입•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보조금• 시간제 돌봄사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향후 바우처사업으로 운영)

[광진구] 플랫폼형 돌봄식당과 재가형 사회서비스

광진구 특구사업단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와 협동으로 돌봄 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오프라인 거점으로서 플랫폼형 돌봄식당인 ‘열린밥상’ 2개점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특구사업단은 본사업 3년차에 돌봄플러스협동조합으로 재편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재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플러스’브랜드를 개발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본사업을 통해 개발한 4종 12개의 재가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돌봄의 기반을 조성했다.



광진구 비즈니스 모델 개요

1. 플랫폼형 돌봄식당

구분	내용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플랫폼형 공간 개설
핵심가치	어르신에게 영양 있는 식사와 건강한 생활 지원 (클러스터 서비스 오프라인 거점)
서비스	영양 집밥, 노인 프로그램 제공, 공유 공간
고객 집단	독거 및 노인부부세대, 서울시민, 공간 수요자
고객 및 시장 확보 방법	협동사회경제의 공공성 및 클러스터 서비스 브랜드 전략에 따라 식사 수요 어르신, 주민조직, 서울시민
비용/ 수익 구조	• 식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어르신은 일부 부담, 취약계층은 사회적 자원으로 지원 • 기획상품 판매, 공간 임대

2. 재가형 사회서비스

구분	내용
비즈니스 모델	재가형 사회서비스 ‘돌봄플러스’통합지원센터
핵심가치	수요자 중심의 재가형 사회서비스 통합적 지원 (원스톱 서비스, 사회서비스 유통 플랫폼)
서비스	4종(주거, 영양, 정서, 요양 돌봄) 12개 사회서비스
고객 집단	재가 서비스 필요한 노인, 장애인, 환자 및 일반 가정
고객 및 시장 확보 방법	• 대상집단 : 광진구민, 인근지역 거주민 (협동사회경제의 공공성 포지셔닝 전략) • 목표집단 : 재택 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민 (클러스터 서비스 브랜드 전략) • 핵심집단 :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고객 사례관리 전략)
비용/ 수익 구조	재가형 서비스 자부담 및 일반인 상품구매자 매출

노원구 재이용품 수거, 판매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노원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가치는 재이용품 이용 활성화로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원구 특구사업단은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을 주축으로 되살림가게 6곳(직영 4곳, 연계매장 2곳)을 개설하고 동별 거점을 마련했다. 본사업 2년차에 공동선별작업장을 마련함으로써 재이용품 수거 및 판매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구축된 자원순환 시스템(공동수거, 물류, 판매)은 노원구를 넘어 인근 자치구(동북4구)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향후 서울시 전체의 자원순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했다.

노원구 비즈니스 모델 개요

구분	내용
비즈니스 모델	되살림 사업연합 형성을 통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핵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각과 매립을 줄여 지구환경 보호•취약한 이웃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자원순환도시 노원을 만드는 출발점
상품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이용품 기증수거 서비스•재이용품 판매 : 의류·신발·도서·잡화 등
고객 집단	되살림가게 인근 주민
고객 및 시장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별 거점 되살림가게 운영•동별 거점 되살림가게와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캠프 협약•노원구 녹색장터(노다지장터) 연 2회•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자원순환의 날(기부데이 매월 20일) 운영
비용/ 수익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되살림가게 및 선별장 공간 임대비•되살림가게 관리인력 인건비•재이용품 수거 및 선별 작업인력 인건비•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사업비•되살림가게 재이용품 판매•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장터 및 마을바자회 판매•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폐기물 판매•되살림가게 위탁 판매



마포구 홍대 앞 문화예술 체험, 탐방 프로그램

마포구 특구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은 홍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경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공간을 연계해 문화예술 체험,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문화예술 비즈니스 플랫폼 “STACCATO H(스타카토 H)”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알렸다.

마포구의 모델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과 수익을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포구 비즈니스 모델 개요

구분	내용
비즈니스 모델	홍대앞 문화예술 특화 비즈니스모델
핵심가치	맞춤형 문화예술 기반 통합적 경험 콘텐츠 개발, 운영해 홍대 앞 문화예술 자원과 대상 소비자층을 연결해 호혜적 이익 창출
서비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인, 공간 등을 연계해 문화예술 체험·탐방 패키지 상서비스 제공 (예: 지역 내 기업, 단체를 위한 문화예술 기반 모임, 회식 패키지 판매)
고객 집단	지역 내 기업·단체, 일반 시민(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고객 및 시장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기존 주민 커뮤니티 대상 홍보• 자치단체 홍보수단 활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용
비용/수익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비, 콘텐츠 개발비, 공간사용료, 프로그램 관리·진행 인건비 등• 패키지 판매, 개별/단체 프로그램 참가비, 연회비, 플랫폼 콘텐츠 수수료, 부가상품 판매비 등



[성동구] 지역산업 기반 ‘소셜패션’ 생태계 모델

성동구 특구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은 봉제, 제화 등 성동구의 패션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협업체제를 구축해 공동브랜드를 개발, 판매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방식의 패션 생태계를 ‘소셜패션’으로 정의한 특구사업단은 소셜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패션 소공인들이 협동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봉제소공인 협동조합과 디자이너들의 협업으로 의류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잉여 폐원단 활용한 제품도 선보였다. 이 모델을 통해 봉제 소공인들의 협동 경험을 축적하며 공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성동구 비즈니스 모델 개요

구분	내용
비즈니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패션산업에서의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업체제 구축패션봉제 당사자들의 기획-디자인-생산-유통 협업을 통한 공동제품 판매 및 브랜드 개발공공시장(B2B) 주문 유통
핵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협업 모델 및 소셜패션 인식 확산패션봉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봉제소공인 협동조합-디자이너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소셜패션 상품 개발잉여(폐)원단을 활용한 제품 : 의류, 소품공공시장 유통 제품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주문형 상품 : 의류, 파우치, 방석, 가방, 앞치마 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해결형 상품 개발
고객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시장(B2B)개인소비자(B2C)
고객 및 시장 확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클라우드 펀딩SNS(블로그, 페이스북)박람회, 전시회, 프리마켓 참가
비용/ 수익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부재료비, 디자인 개발비, 유통 및 판매 관리비주문 판매, 프리마켓 판매, 클라우드 펀딩 수익 등



[성북구] 재개발지역 주민육구 총족 ‘초등틈새돌봄’

성북구 특구사업단은 지역주민 육구조사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아이 돌봄 문제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수립했다. 장위동 지역에 ‘초등틈새돌봄교실’을 개설하고 학기는 물론 방학 중에도 초등생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이는 2018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또 다른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한 지역관리 기업은 협동조합 설립까지 마쳤지만 관리 대상 공간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복합복지문화센터, 청소년문화공간 등)의 준공 일정이 지연돼 구체적인 성과는 2019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비즈니스 모델 개요

구분	내용
비즈니스 모델	장위동 초등틈새돌봄교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
핵심가치	자격 제한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돌봄서비스 (학기 중 13:00 ~ 19:30/ 방학 중 10:00 ~ 19:00)• 간식 및 마을교사 연계 프로그램 제공
고객 집단	초등학교 학부모와 아동
고객 및 시장 확보 방법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 및 홍보
비용/ 수익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월 470만원 (종일 1인, 반일 2인)• 운영비: 월 200만원• 중앙 정부 보조금: 월 470만원 (인건비)•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월 140만원• 학부모 이용료 / 후원금: 월 60만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미래를 품은 3.5년

2015.07-2018.12

관악구 |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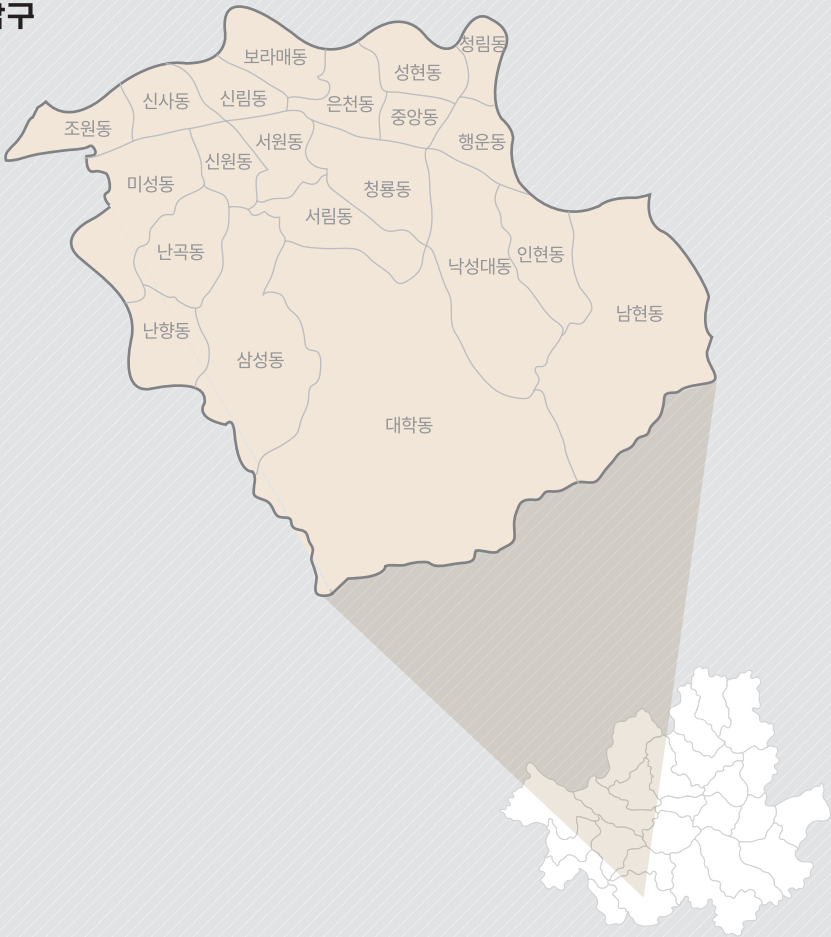
광진구 | 돌봄 서비스 기반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 성장 전략

노원구 | 되살림 사업연합을 통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마포구 | 홍대 앞 문화예술특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구축사업

성동구 | 협동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하다

성북구 |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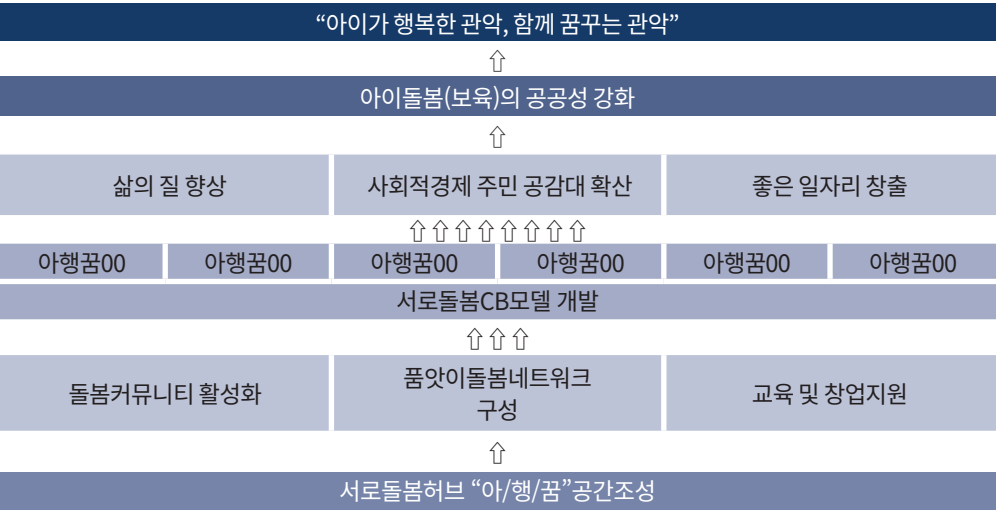
관악구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육아 부담을 덜고 육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아이가 행복한 관악, 함께 꿈꾸는 관악’을 모토로 2015년,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되었다.

특구사업단은 사업모델 수립(2016년), 사업기반 마련(2017년), 지역사회 안착(2018년) 등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돌봄 사업’을 모델화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돌봄CB센터(법인)를 설립했고, 서로돌봄 서비스를 개발했다. 공동체육아거점 공간(7곳), 서로돌봄사업장(2곳)을 마련해 아이돌봄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구축했고, 아이돌봄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썼다.

특구사업단이 특히 주력한 건 ‘시간제 돌봄사업’이었다. 보육기관을 통한 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련된 이 사업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보육서비스이다. 현재 정부가 ‘아이돌보미’ 사업, ‘보육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목적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아이돌봄사업으로서 ‘서로돌봄’을 통해 독박육아를 해소하고 육아사각지대를 줄이는 공동체육아 지역생태계를 만든다.



사업성과



공동체육아 거점 공간
7곳



서로돌봄사업장
2곳



커뮤니티 구성
20개



공동사업프로젝트
10개

연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사업모델 수립(개념정리, 모델수립, 주체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로돌봄사업단 운영 및 법인화 진행•시간제보육 시범운영•공동체육아 시범사업•서로돌봄한마당•서로돌봄부모교육•서로돌봄 공간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단에서 법인으로 사업주체 전환•네트워크(4개)•공동체육아거점공간 2개 구축•사회적협동조합 1개•커뮤니티 총 7개
2017년	사업기반 마련(핵심모델 사업화, 지역사업화, 사업전문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로돌봄협동조합 설립•시간제돌봄 시범운영•거점공간개발•홍보·소통 및 사업유형별 자료 정리•서로돌봄 전문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로돌봄사업장 1호점 오픈•공동체육아 거점 공간 7개•협동조합 1개•커뮤니티 총 10개
2018년	지역사회 안착(멤버십 강화, 사업 내실화, 사업내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로돌봄 사업체 2호점 설립/1호점 운영안정•시간제아이돌봄 사업 확대운영•거점공간 운영 체계화•서로돌봄 공동사업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로돌봄사업장 2호점 오픈•협동조합 설립 1개•커뮤니티 20개 이상•공동사업 프로젝트 10개

관악구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2018년 기준)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역할
1	사회적협동조합서로돌봄센터	이사장	정윤정	특구 단장
2	서봄어린이집	원장	강영란	사업팀장
3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구명숙	자문
4	서봄부모협동조합	이사장	임진희	서봄어린이집 부모대표
5	북트리	대표	류근숙	오감놀이 기획 및 진행
6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사업팀장	유지은	시간제사업 총괄
7	마을지원센터	팀장	여용옥	부모학교 운영진
8	다빈치고래숲	대표	송수연	부모학교 운영진
9	행복중심서울생협	이사장	김혜경	식생활 교육 기획 및 강사
10	관악지역자활센터	동네북 운영위원	민병근	공간지원
11	관악사회복지	사무국장, 심포 운영위원	조성호	공간지원
12	마더센터	대표	김한영	부모학교 운영진
13	관악구청 주민협치과	주무관	한선영	특구 담당자
14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세상	이사장	신진숙	시간제서비스
15	관악사회복지	공간 심포 공간지기	이희영	공간지원
16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세상	공간지기	유현의	시간제서비스, 공간지원
17	북트리	공동대표	조이정	오감놀이 기획 및 진행
18	관악마을지원센터	센터장	박정란	커뮤니티활성화 기획

공간조성 및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관악구는 25개구 중 규모 5위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5.08%를 차지한다. 그중 영유아(만0~4세)인구는 1만7,617명으로, 서울시 전체 영유아인구의 4.47%(11위)를 차지하고 있다(2015년 11월 기준). 연령별로는 서울시 전체에 비해 20~30대 인구비중이 높고(37.9%), 특히 25~34세 인구비중이 크게 나타나(21.7%) 잠재된 영유아 부모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수가 서울시 동별 평균 2개이지만 관악구는 동별 1개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관악구 내 2~3세 대상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26곳, 민간 방과후 교실이 1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초과 상태여서 젊은 세대 맞벌이 부부 등은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욕구가 크다. 또한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 영유아를 돌보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시소와 그네)'가 폐쇄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요구된다.

이에 특구사업단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서로돌봄 구조를 사업화해 영유아 돌봄 욕구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구사업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2015년 9월 관악구사회적경제과, 지역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8개 기관단체가 모여 관악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을 구성했다. 특구사업단은 12월까지 월례회의, 워크숍, 교육 등을 진행하는 한편, 관악구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서로돌봄CB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문제 해결방안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공동체 육아 욕구조사

특구사업단은 2015년 10월~12월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육아 욕구조사 실시했다. 조사는 현장실천가 및 지역주민 포커스 그룹 인터뷰(총 4회), 주민 300명 대상의 설문 조사로 진행되

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환경이 미흡하며, 98%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서로돌봄 공동체 육아'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여부를 물었는데, 80% 이상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관악구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돌봄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필요육구 만큼 이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허브공간(센터)이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품앗이 돌봄 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돌봄CB 모델개발 시범사업

특구사업단은 2015년 9월~12월 서로돌봄 교사 발굴, 공동체 육아 프로그램 개발, 부모참여 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서로돌봄CB 모델개발 시범사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인 '통합돌봄파견서비스팀'을 시간제돌봄교사로 발굴해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설



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부모교육은 총 14회 진행돼 연인원 286명이 참여했다. 협동조합과 부모교육을 결합한 기초교육과 초기 공동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육아 소모임 5개팀(다행, 어울키움, 북톡, 품품, 알리지영유아와 부모공동체협동조합 준비팀)이 발굴돼 서로돌봄 사업의 기초를 마련했다.

서로돌봄허브 공간 조성



2015년 9월 관악사회적경제허브센터 1층에 서로돌봄허브 공간(관악 서로돌봄센터)을 마련했다. 이곳은 지역사회 활동자원과 서로돌봄을 연계하는 거점공간의 역할을 한다. 12월까지 이곳에서 회의, 교육, 소모임 등이 진행되었고, 연인원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관악 아이돌봄 네트워크 출범

2015년 9월 사회적 경제방식의 아이돌봄에 관심 있는 관악구내 현장실천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관악 아이돌봄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네트워크에는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로돌봄 추진단, 당곡어린이집, 행복중심서울생협, 서울대부모학생조합,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빈치고래 숲아카데미, 생태유아공동체, 관악마을사업단, 가좌제일어린이집,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등이 참여했다.

네트워크는 ‘서로돌봄 커뮤니티 모델’에 대한 실천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아이돌봄 공론화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주체의 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비고
1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구명숙	
2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로돌봄CB 담당	윤지수	
3	서로돌봄추진단	시범운영팀	송세랑	
4	당곡어린이집	원장	민난주	자문
5	행복중심서울생협	이사장	최정숙	자문
6	서울대부모학생조합	조합장	서정원	자문
7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	김재욱	
8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	장지연	
9	다빈치고래숲아카데미	대표	송수연	
10	생태유아공동체	사무국장	이마리아	
11	관악마을사업단	사무국장	박정란	
12	가좌제일어린이집	원장	임선숙	
13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팀장	유지은	베이비시터 파견

서로돌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수립

본사업 1년차의 목표는 서로돌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업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구사업단은 서로돌봄사업단을 운영하며 사업모델의 밑그림을 그렸고, 시범사업(시간제보육, 공간운영, 공동체육아)을 통해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사업주체를 발굴, 육성했다. 서로돌봄사업단은 창립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로 출범했다.

서로돌봄사업단 운영 및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특구사업단은 서로돌봄사업단을 구성해 월 1회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는 서로돌봄센터



터 업무담당자 및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는 서로돌봄 커뮤니티 비즈니스(이하 서로돌봄CB) 모델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법인 전환을 준비했다.

그 결과, 서로돌봄사업단은 2016년 11월 11일 창립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로 전환되었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과 공간플랫폼 시범운영

특구사업단은 서로돌봄CB 시범사업팀인 ‘동그라미세상’과 함께 2016년 10월부터 관악 서로돌봄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동그라미세상뿐 아니라 공동체 육아 시업사업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돌봄센터 공간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체육아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동그라미세상의 사업모델이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관악 서로돌봄센터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지역의 공동체육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로돌봄 공간플랫폼 개발 및 운영

관악 서로돌봄센터에서 시작된 서로돌봄 공간 플랫폼은 2호 서원점 개소로 이어졌다. 7개 공동체육아 커뮤니티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부모들과의 연결망을 확대해 서로돌봄CB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동그라미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준비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확장가능성을 확인했다.

공동체육아 시범사업

2016년 8월 18일~11월 30일 공동체육아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보다 발전된 형태를 고민하는 공동체육아 커뮤니티를 발굴해 서로돌봄CB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5개 팀, 287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서로돌봄센터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체육아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저비용 중참여 방식’

의 공동체육아를 선호했는데, 이는 기존 공동체육아 확산의 걸림돌인 고비용, 고참여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공동체육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돌봄교육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아이와 함께 체험해보는 서로돌봄 교육이 2016년 12월 6일~12월 20일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특구사업단과 추진단 일원인 다빈치고래숲아카데미(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팀)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체육아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체험하며 공동체육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로돌봄한마당

본사업 1년차를 결산하고 서로돌봄센터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서로돌봄한마당이 2016년 12월 9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마당은 관내 영유아 부모들이 보육 관련 사회적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서로돌봄 사업 기반 마련

본사업 2년차의 목표는 서로돌봄 사업의 사업·조직·전문역량을 보완하여 기반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로돌봄 사회적경제 사업체를 설립·운영하고, 본사업 1년차에 이어 시간제돌봄 사업을 시범운영했다. 서로돌봄 공유공간을 거점별로 개발하는 한편, 부모교육 및 전문자원연계 등으로 아이돌봄 사업의 전문역량을 키웠다.

특히 독박육아와 육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거점공간, 사업주체, 공동체육아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즉 지역연대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산을 축적했다.

서로돌봄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적·물적·조직적 인프라를 만들었다. 핵심사업인 협동조합 어린이집 공간거점 서원동과 행운동 2곳에 마련하고, 서로돌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서부모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세상이 핵심사업을 수행했다. 서로돌봄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7명의 서로돌봄교사를 양성했다. 일자리는 서로돌봄센터 3인, 협동조합어린이집 5명, 시간제돌봄 사업으로 4명 등 12개의 서로돌봄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특구사업의 주체인 서로돌봄센터는 공동체육아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협동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 인큐베이팅 경험을 쌓고 핵심사업인 협동조합어린이집 운영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1) 서부모협동조합 설립 및 협동조합어린이집 개원

서부모(서로돌봄)부모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본격화되었다. 2017년 4월 1기 예비조합원을 모집했고, 5월 설명회가 이어졌다. 협동조합준비팀은 5월부터 서부모협동어린이집의 전신인 서부모돌봄방을 운영하며 서로돌봄 사업경험을 쌓았다.

서로돌봄 부모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도 6회 열렸고 연인원 128명이 참여했다. 이같은 준비과정을 통해 2017년 12월 9일 서부모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서부모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동체육아를 목표로 한 협동조합형 보육기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특구사업단은 12월 향후 서부모협동조합이 운영할 서부모협동어린이집 1호점(서원점)을 오픈했고, 2호 행운점의 설계를 완료했다. 앞으로 1호 서원점은 어린이집 인가 후 서부모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가 이관되고, 2호 행운점도 인가 후 또 다른 부모협동조합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부모협동조합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만든 것이다.



2) 시간제돌봄 시범운영

먼저 2017년 5~6월 서로돌봄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기초과정(총 8강)에 10명이 참여했고, 9월 13일 열린 심화과정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동그라미세상 조합원, 예비서부모협동어린이집 교사, 서로돌봄교사 등 13명이 참여했다.

관악 서로돌봄센터에서 연중 진행된 시간제돌봄 시범사업에는 연인원 223명이 참가했다. 시간제돌봄교사 1인이 시간당 6명의 영유아를 돌봤다. 이를 통해 시간제돌봄 수요를 확인했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사인력 풀을 갖출 수 있었다.

본사업 1년차에 시간제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 육성된 동그라미세상이 2017년 5월 정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그라미세상은 영유아돌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한다.



서로돌봄 지역거점 공간 발굴 및 활성화

모두 7개의 거점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서로돌봄(공동체육아) 공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홍보활동, 플리마켓 운영 등을 통해 서로돌봄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공동사업으로 서로돌봄사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악지역의 보육현황을 파악하고 시간제돌봄 사업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1) 서로돌봄센터 연계 지역 공동체육아 거점공간 개발(총 7개)

서로돌봄센터 거점공간을 총 7개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공동체육아 커뮤니티가 10곳 이상 구성되었다. 공간당 50~1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비는 회비와 이용료로 충당된다.

• 서로돌봄센터 현황

① 서로돌봄센터 관악점(2015.10 오픈)

센터명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공간유형	- 시간제돌봄시설 - 교육 및 회의시설 - 서로돌봄육아 활동시설
활동내용	- 시간제돌봄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공간대여
활동커뮤니티	- 4개팀 행복중심서울생협다행,아픈아이협동조합(준),품앗이공동육아'엄마품에어울기움', 다빈치고래숲아카데미 등



② 서로돌봄센터 서원점(2016.08 오픈)

운영주체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세상
공간유형	- 초중등 방과후 공부방 - 공동체육아 활동공간
활동내용	- 공동체육아 활동 공간제공 - 방과후 공부방 운영 - 공간대여
활동커뮤니티	- 1개팀(서봄부모협동조합)



③ 서로돌봄센터 보라매점(2017.09 오픈)

운영주체	동네book카페(관악지역자활센터)
공간유형	- 북카페 - 교육시설 - 각종 활동 공간
활동내용	- 공동체육아 활동 공간제공 - 청소년 및 주민 교육 - 공간대여



④ 서로돌봄센터 미성점(2017.11 오픈)

운영주체	행복마을 마더센터
공간유형	- 마을카페 - 유아~초등 아이들 놀이시설 - 공동체육아 활동 공간
활동내용	- 공동체육아 활동 공간제공 - 카페운영(음료/간식) -공간대여
활동커뮤니티	- 4개팀



⑤ 서로돌봄센터 난곡점(2017.12 오픈)

운영주체	마을카페 공간신포
공간유형	- 마을카페, 마을도서관 - 공동체육아 활동공간
활동내용	- 공동체육아 활동 공간제공 - 카페운영(음료와 간식) - 공간대여



⑥ 서로돌봄센터 조원점(2017.12 오픈)

운영주체	북트리
공간유형	- 시간제돌봄시설 - 공동체육아 활동공간
활동내용	- 공동체육아 활동 공간제공 - 카페운영(음료와 간식)
활동커뮤니티	- 1개팀



⑦ 서로돌봄센터 낙성대점(2017.12 오픈)

운영주체	행복중심서울생협
공간유형	- 부엌시설, 교육장 - 공동체육아 활동공간
활동내용	- 교육 및 식교육제공 - 먹거리 매장운영
활동커뮤니티	- 1개팀



2) 공간 활성화를 위한 서로돌봄 플리마켓 운영



2017년 10월 21일 관악구청사 대강당에서 서로돌봄 플리마켓이 열렸다. 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난감 바자회를 운영했고, 서로돌봄센터는 만들기 체험코너를 운영하며 서로돌봄 사업과 거점공간을 알렸다.

3)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부모강좌 프로그램



서로돌봄 부모강좌가 2차례 열렸다. 1차는 6월 27일 서로돌봄센터에서 모기퇴치제 만들기 강좌(28명 참여), 9월 9일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몸 놀이(21명 참여)를 진행했다.

R&D사업

서로돌봄센터와 전문기관과의 연대사업으로 필요한 전문역량을 보완하고 사업수행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의 아이돌봄 사업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축적했다. 특히 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서로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소규모 육아공동체 커뮤니티 구축에서 서로돌봄협동조합 설립까지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서로돌봄사업의 온·오프라인 소통과 홍보활동으로 서로돌봄사업의 인지도를 높였다.

1) 서로돌봄 사업 콘텐츠 자산 구축

서로돌봄 사업모델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2017년 5월 서로돌봄시간제돌봄교사 양성과정 기초과정 자료집 제작에 이어 8월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 자료집을 발간했다. 12월에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2) 서로돌봄센터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연계

서울시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공동육아 어린이집 실무자 및 원장에 대한 공동교육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과 연대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2017년 7월 (사)공동육아공동체교육, 8월 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 12월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 착한여행 등과 착한여행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로돌봄 사업 내실화로 지역사회 정착

본사업 3년차의 목표는 서로돌봄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로돌봄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2년여 동안 구축한 서로돌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악서로돌봄 클러스터’를 추진했다.

클러스터 핵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서로돌봄 사업체 1호점(협동형 민간어린이집, 서봄어린이집)과 2호점(행운 ‘공간서봄’)을 설립했고, 서로돌봄센터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원장을 서봄어린이집에 파견해 초기운동을 1년간 지원했다. 시간제돌봄 사업은 동그라미세상이 10개의 거점공간과 연계해 확대, 운영했다.



서로돌봄 거점공간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성장도 촉진했다. 서로돌봄센터와 각 거점공간의 협동운영체계를 갖추고, 지역공동의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거점공간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로돌봄 사업의 가치와 규모를 확장시켰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서로돌봄학교’를 통해 원장, 교사, 부모교육을 실시했고 서로돌봄부모협동조합을 지원했다.

서로돌봄사업단 멤버십 강화

1) 구성원 공간 순회 회의

관악구에 흩어져있는 특구사업단 구성원들의 공간을 순회해 각종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멤버십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추진단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2) 공동 프로그램 진행

추진단 구성원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오감놀이, 이유식교실, 전래놀이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추진단 구성원 중 6곳에서 프로그램이 열렸고, 연인원 515명이 참가했다.

관악구청 앞 관악 서로돌봄센터에서만 진행되던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이 서원동, 조원동, 낙성대동, 미성동, 장군봉, 낙성대유아숲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열려 영유아 부모와 아이들의 참여가 늘었다.



3) 상담, 소통 플랫폼 구축

본사업 2년차까지 주민들은 전화연결과 상담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공간대여, 시간제 돌봄, 부모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등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상담수요도 늘었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2월 27일 SNS 채널(카카오프러스친구)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서로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상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4) 영유아 엄마들과 소통 강화

서로돌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육아소 모임 ‘콩닥콩닥’(7명)을 구성했다. 외출가능 시간, 아이들 낮잠 시간과 집중 시간을 고려해 기획한 ‘엄마표 오감놀이’를 커뮤니티 활성화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콩닥콩닥’ 소모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영유아 부모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었다.

서로돌봄 사업체 운영 내실화

1) 서봄어린이집 인가, ‘공간 서봄’ 오픈

1호 사업체 서봄어린이집(정원 14명)이 3월 인가를 받았다. 2018년 12월 현재, 9명의 아동을 4명의 교사가 돌보고 있고, 서봄어린이집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이 6회 진행되었다. 11월에는 행운동에 2호 사업체인 ‘공간 서봄’이 문을 열었다.



2) 시간제 서비스 확대 운영

야간, 주말, 긴급 돌봄을 위해 서원동 동그라미세상이 서로돌봄센터 서원점에서 시작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서로돌봄센터 관악점으로 확대되었고, 11월에는 2호 사업체로 오픈한 ‘공간 서봄’에서도 실시되었다.

[사례1]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의 한부모 가정

“한부모 여성인데 자격증시험을 보고자 했지만 초등학교 딸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주변에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아침에 아이를 맡아준다는 곳이 있어 자격증시험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주로 주말에 치러져 아이 맡길 곳이 없는 저는 높은 비용을 들여 돌봄인력을 불러야 하나 했는데, 관악구에서 별도로 공간에서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시험을 보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더군요. 덕분에 시험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2] 장애가 있는 가정에게 시간제보육이란?

“아이가 눈에 띄는 장애가 아니지만 약간의 장애로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제 돌봄 서비스 덕에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커뮤니티 성장 촉진

공동체육아 커뮤니티 간의 협동운동을 경험하고, 2호 사업장인 ‘공간 서봄’ 활성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돌봄 공동사업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했다.

총 2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50회에 걸쳐 432명이 참여했다. 커뮤니티 공간별 운영주체간 협동운영 경험을 통해 서로돌봄의 가치를 확장했다.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커뮤니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다.



연번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	아기도 엄마도 행복한 건강이유식 교실	시기: 2018.4. 장소: 동그라미세상 참여자수: 20명 횟수: 4회
2	아이고 엄마도 행복한 책놀이 교실	시기: 2018.4. 장소: 북트리 참여자수: 20명 횟수: 4회
3	아이고 엄마도 행복한 책놀이교실	시기: 2018.4. 장소: 서로돌봄센터 관악점 참여자수: 56명 횟수: 4회
4	아이고 엄마도 행복한 건강이유식교실	시기: 2018.5. 장소: 행복중심 낙성대 공동부엌 참여자수: 28명 횟수: 4회
5	아이고 엄마도 아빠도 행복한 건강한 숲놀이교실	시기: 2018.5. 장소: 장군봉 참여자수: 15명 횟수: 3회
6	공동육아 서봄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건강절기요리 1	시기: 2018.7. 장소: 서원동 서봄어린이집 건물 지하1층, 활동공간. 참여자수: 5명 횟수: 1회
7	공동육아 서봄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건강절기요리 2	시기: 2018.8. 장소: 서원동 서봄어린이집 건물 지하1층, 활동공간. 참여자수: 5명 횟수: 1회
8	공동육아 서봄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건강절기요리 3	시기: 2018.7.. 장소: 서원동 서봄어린이집 건물 지하1층, 활동공간. 참여자수: 5명 횟수: 1회
9	클로버교육 유아체험프로그램 ※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시기: 2018.7. 장소: 서로돌봄센터 관악점 참여자수: 11명 횟수: 1회
10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손유희놀이	시기: 2018.7. 장소: 서로돌봄센터 관악점 참여자수: 12명 횟수: 1회

연번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1	서로돌봄과 함께하는 친환경교육1	시기: 2018.7. 장소: 서로돌봄센터 관악점 참여자수: 7명 횟수: 1회
12	서로돌봄과 함께하는 친환경교육2	시기: 2018.7. 장소: 서로돌봄센터 관악점 참여자수: 12명 횟수: 1회
13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부모코칭	시기: 2018.10. 장소: 공간서봄 참여자수: 44명 횟수: 2회
14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건강한 제철간식	시기: 2018.11. 장소: 공간서봄 참여자수: 36명 횟수: 4회
15	찾아가는 부모예술학교 ※관악창작놀이터와 함께 진행	시기: 2018.11. 장소: 공간서봄 참여자수: 33명 횟수: 3회
16	공간서봄 김치담는날	시기: 2018.12. 장소: 공간서봄 참여자수: 3명 횟수: 1회
17	찾아가는 예술로 창작극장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진행	시기: 2018.12. 장소: 공간서봄 참여자수: 10명 횟수: 1회
18	공간서봄 오픈하우스	시기: 2018.12. 장소: 공간서봄 참여자수: 30명 횟수: 1회
19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서로돌봄학교	시기: 2018.8~11. 장소: 서로돌봄센터 관악점, 공간서봄 참여자수: 80여명 횟수: 8회
20	공간서봄 홍보 및 서로돌봄 공동체육아 2기 모집	시기: 2018.12~ 장소: 공간서봄 진행 중

지역공동체 육아의 기초 인프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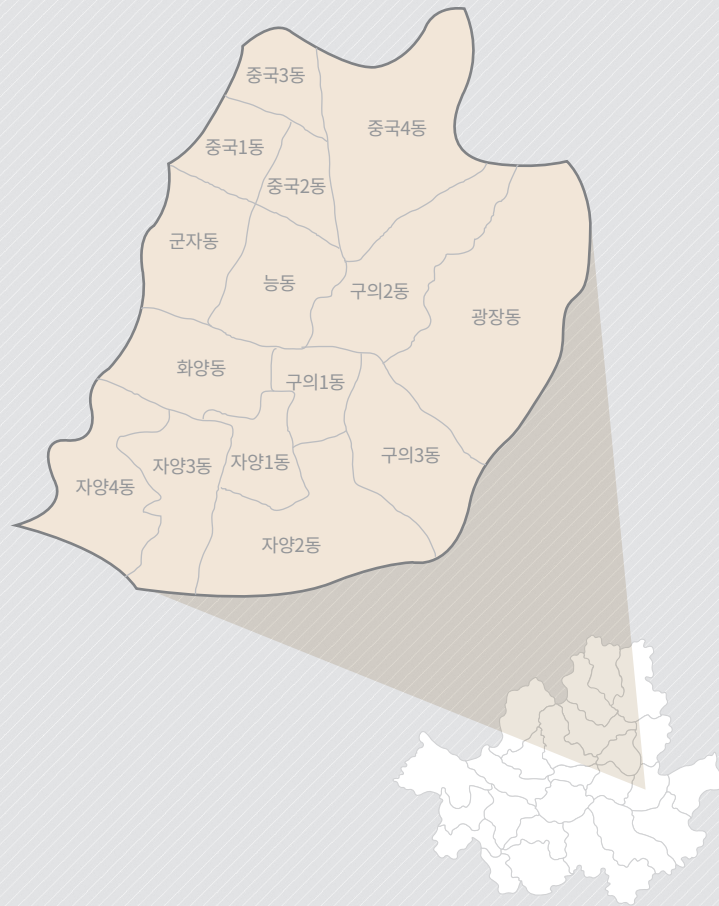
- ‘지역공동체육아 기획자’ 그룹인 서로돌봄사업단을 토대로 특구추진 지원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가 창립되고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 서로돌봄 특구사업의 첫번째 사업으로 ‘서봄어린이집’ 공간설치 및 운영주체가 발굴되었고, 협동형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음으로써 협동조합 기반의 공동육아를 통한 지역경제공동체가 탄생했다.
- 서로돌봄 특구사업의 두번째 사업으로 오픈한 ‘공간 서봄’을 통해 서로돌봄의 가치를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추진단 내부의 협력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되면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주체 양성

- ‘지역공동체육아 활성화를 통한 독박육아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주민경제공동체를 발굴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고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이 양성되었다.
- 초기 사업주체 발굴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3년간 꾸준한 기획과 시도로 서로돌봄 사업주체와 사업모델을 현실화 하게 되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가 지역공동체육아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육아 관련 사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동체육아 거버넌스 형성으로 지역사회 내 서로돌봄의 위상 정립

- 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으로 부모교육을 2년간 지속하고, 관악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내 영유아분과원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서 ‘서로돌봄’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었다. 관악구청 주민협치과가 특구사업단 회의에 적극 참여했고, 특구 사업을 알리고 지원했다.
- 2017년 서로돌봄센터 거점공간으로 협약한 조원동의 ‘북트리’, 낙성대의 ‘행복중심 낙성대매장 공동부엌’, 난향동 ‘섬표’, 서원동 ‘동그라미세상’, 서원동 ‘서봄어린이집’, 행운동 ‘공간 서봄’에서 회의 및 커뮤니티 공유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서로돌봄의 가치를 공유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 거점공간이 확대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와 공간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서로돌봄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했다.



돌봄 서비스 기반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 성장 전략

광진구는 지역 내 돌봄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펼쳤다. 사업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관련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기업 클러스터 전략으로 원스톱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협동사회경제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재가형 사회서비스 통합지원센터 모형 설계, 플랫폼형 돌봄식당 운영)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특구사업단은 4가지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돌봄, 영양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단을 제안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영양돌봄, 욕실·주방·냉장고 등을 청소하고 해충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돌봄, 어르신들의 정서를 돌보는 정서돌봄 등으로 노인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 돌봄 서비스는 지역 내 유관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해 수행했다.

사업목적

-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로 사회서비스 원스톱 공급체계 마련
- 돌봄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불안 해소
- 협업화 전략을 통한 협동사회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

사업성과



돌봄 서비스 개발
12개



돌봄서비스 제공
19,322회



플랫폼형 돌봄식당
2곳

연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구사업 추진체계 운영•클러스터 시용 서비스 제공•돌봄 복합매장 개설•클러스터 서비스 상품 재설계 및 개발•중장기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거버넌스-사업단-사무국 구조화•시용서비스 300건 공급•돌봄식당 ‘열린밥상’1호점 개설(2016.10.7)•4종 10개 클러스터 서비스 시용화방충서비스, 방역서비스, 정리정돈(가정관리) 서비스 시험 제공•컨설팅 결과보고서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구사업 추진체계 운영•시용 서비스 제공•돌봄식당 운영 안정화•신규 서비스 개발/리뉴얼•중장기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추진체계 정례화•시용서비스 5,000건 공급•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어르신 회원 1천명 확보•신규 시범 서비스(정리정돈, 향균/항바이러스), 신규 시용 서비스(반찬, 해충방제) 개발•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확산연구 보고서 완성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구사업 주체 법인화•재가형사회서비스 상용화•돌봄식당 기능 활성화•지역사회 플랫폼 사업•중장기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돌봄플러스협동조합 설립(2018.5.28)•지속가능한 운영안 마련•돌봄식당 2호점 ‘따뜻한 밥상’개설(2018.8.24)•지역사회 플랫폼 조직화•지역사회 전략체계 도출

광진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2018년 기준)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역할
1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 사장 사무국장	민동세 송인옥	사업단장, 노인돌봄서비스공급자
2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용수	사업단, 사업운영법인 (실무총괄)
3	사회적기업 인스케어코어	대표	이창환	서비스(특수청소, 해충방제, 향균/항바이러스)공급
4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	대표	장성오	서비스(반찬, 효반, 영양상담) 공급
5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대표	전송배	서비스(정서돌봄)공급
6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대표	유혜경	서비스(이불세탁)공급
7	꿈결 협동조합	대표	전영희	사업단(참관)
8	시니어협동조합	대표	박노정	사업단(참관)
9	텐먼스맘	대표	이소희	사업단(참관)
10	함께누리협동조합	대표	신혜정	사업단(참관)

사회적경제 기업 클러스터 성장 전략을 통한 돌봄산업 활성화

광진구는 25개구 중 인구규모 17위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3.59%를 차지한다. 그중 만65세 이상 인구는 3만9,932명으로, 광진구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2015년 11월 기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및 가족제도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 환경은 사회서비스 산업을 크게 확장시켰지만 제도화 수준이 낮고 비공식부문에 집중된 돌봄 서비스 환경 때문에 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공급자를 찾기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적 돌봄의 운영모델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 새로운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한계가 있고, 돌봄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미흡하다. 때문에 관련 기업 간의 협업체계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광진구 특구추진단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사업을 통해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해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구사업단 구성

2015년 8월 광진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이 구성되었다. 자치구(광진구 일자리경제과·일자리운영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주)복지유니온, (주)인스케어코어, 시니어협동조합,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을 비롯해 지원조직(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광진사회적경제생태계지원사업단, 광진구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단)이 사업단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클러스터 서비스 및 상품 설계

특구사업단은 요양, 영양, 주거, 정서 등 4개의 돌봄 분야를 설정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클러스터를 구성했다. 클러스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돌봄사회서비스기업), 복지유니온(영양관리 및 도움식 제조기업), 인스케어(건물청소 및 위생관리, 특수청소기업), 시니어협동조합(강사파견, 사회서비스 공급),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국악·놀이 프로그램 제공) 등 5개 조직이 참여했다. 이어 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및 상품을 설계하고 분야별 주관사를 선정했다. 돌봄사회서비스기업 재구조화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영양돌봄 및 도움식사 리뉴얼은(주)복지유니온, 주택청소·위생관리서비스·특수청소서비스 리뉴얼은 (주)인스케어 코어, 치료·정서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은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가 각각 맡았다. 돌봄 인력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 리뉴얼 및 신규 돌봄 서비스 개발은 시니어협동조합이 진행했다.

사업계획 수립

특구사업단은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하고,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업종이거나 다른 기능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클러스터 구조화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사업체계를 마련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꾀했다.

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상품 개발

본사업 1년차는 특구사업 추진체계를 만들고 시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러스터 서비스 상품을 재설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플랫폼형 돌봄식당인 ‘열린밥상’1호점(구의동)을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에 컨설팅을 의뢰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특구사업 추진체계 운영

- 민·관정책협의회의 회의 : 1회 개최(2016. 11. 1.)
- 클러스터 사업단 회의 : 7회 개최(2016. 5. 24. ~ 12. 23.)
- 사무국 회의 : 22회 개최(2016. 6. 14. ~ 12. 26.)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 시용 서비스 제공

2016년 8월 23일부터 지역 내 돌봄밴더(늘푸른돌봄센터) 이용자 및 독거어르신(자양4동, 구의동)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시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양 서비스로 109명에게 복지유니온에서 제조한 영양죽 ‘효반’을, 57명에게 청소 서비스를, 24명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아동국악



교육협회 주관으로 33명에게 정서 서비스를, 도우누리 늘푸른돌봄센터가 5명의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다.

플랫폼형 돌봄식당 개설과 운영

독거어르신들이 집 밖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2016년 10월 7일 플랫폼형 돌봄식당 ‘열린밥상’1호점을 구의동에 개설했다.



클러스터 서비스 상품 재설계 및 개발

8월부터 진행한 시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회의를 14회(2016.7.5~12.21) 진행했다. 인스케어코어, 라이트라이프, 광진지역자활센터, 복지유니온,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가 회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해충방제 서비스, 영양상담, 열린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해충방제는 인스케어코어가 7회 시범 진행했고, 영양상담은 복지유니온이 영양평가 도구를 개발해 10회 진행했다. 열린밥상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국악놀이한마당은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주관으로 두 차례 열렸다.

재가형 사회서비스 확대 추진

본사업 2년차에는 재가형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식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2종을 추가 개발했다.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서울시, 광진구 등에 제안했다.

재가형 사회서비스 운영 및 확대 사업 추진

준상용화를 통해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재가형 사회서비스를 강화했다. 토털 돌봄 서비스(영양, 정서, 청소, 요양) 체계를 구축해 연간 397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유형		사업자	이용자(명)	이용횟수	금액(천원)
정서돌봄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87	303	13,590
영양돌봄	밥	복지유니온	153	153	14,859
	반찬	복지유니온	113	755	14,141
	상담	복지유니온	10	17	680
주거돌봄	청소	인스케어코어	13	34	3,600
	해충방제	인스케어코어	2	2	120
	이불세탁	광진지역자활센터	8	31	391
요양돌봄		도우누리 늘푸른돌봄센터	11	346	4,385
계			397	1,641	51,766

재가형 사회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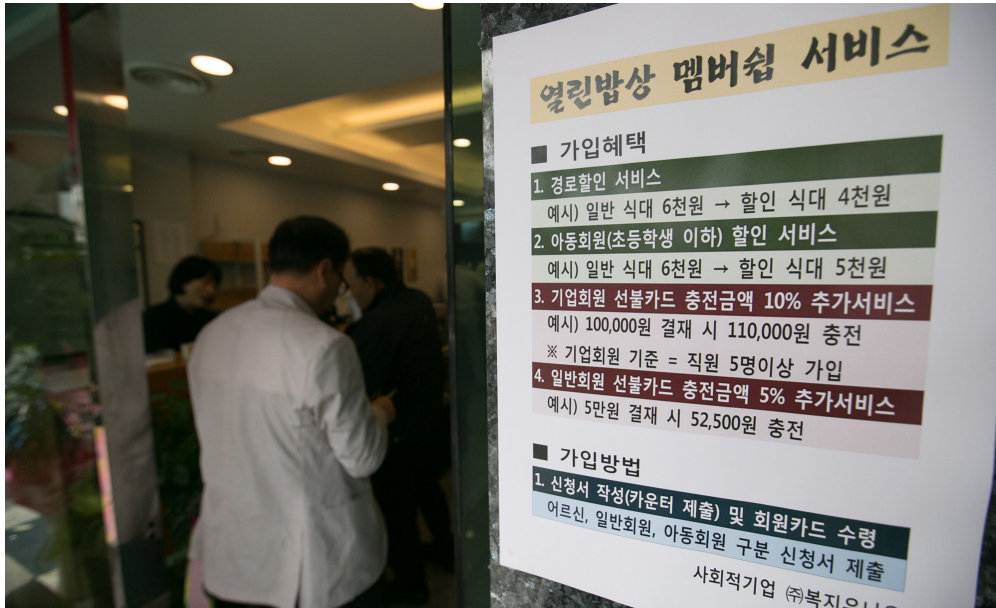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www.dolbomplus.net).



돌봄식당(열린밥상) 활성화

2016년 10월 개설한 돌봄식당(열린밥상) 1호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어르신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전자회원카드를 발급했다.

돌봄식당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프로그램을 2회 운영했고, 스마트헬스센터를 개설했다.



클러스터 서비스 재설계 및 신상품 개발

상품(사회서비스) 다양화로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클러스터 서비스(재가 서비스)를 재설계해 가격 및 자부담률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충방제(인스케어코어), 정리정돈(라이트라이프) 서비스가 추가되어 재가 서비스가 4종 12개로 확대되었다. 이밖에 반찬서비스 배송용 보냉팩, 냉매를 개발했다.

중장기 전략 개발

클러스터 협력사 추가 및 돌봄식당을 활용한 공간 활용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돌봄식당(공간)을 소셜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광진구 및 타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돌봄식당은 독거어르신 영양돌봄뿐 아니라 고독사 예방,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서울시와 광진구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민간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한림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마련한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확산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 조직화

본사업 3년차에는 4대 돌봄(영양, 주거, 정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안착시키고,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을 조직화하는 데 주력했다. 소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플랫폼형 돌봄식당 2호점(중곡동)을 개설했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노인돌봄통합바우처’를 설계했다.

재가형 사회서비스 시용서비스 제공 및 상용화

본사업 3년차에 4대 돌봄(영양, 주거, 정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672명에게 총 5,428건을 제공했다.

서비스유형	사업자	이용자(명)	이용횟수	금액(천원)
정서돌봄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67	232	6,000
영양돌봄	밥(효반)	복지유니온	104	1,960
	반찬	복지유니온	281	1,782
주거돌봄	청소/해충방제	인스케어코어	80	82
	이불세탁	광진지역자활센터	10	33
요양돌봄	도우누리 늘푸른돌봄센터	45	1,254	10,334
합계		672	5,428	65,377

플랫폼형 돌봄식당 운영 및 2호점 개점

돌봄식당 1호점(열린밥상)에 이어 2018년 8월, 2호점인 ‘따뜻한 밥상’(중곡동)을 개점했다. 2호점은 프랜차이즈 방식의 가맹점으로서 임원진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이사), 주식회사 인스케어코어(이사), 주식회사 복지유니온(이사),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감사) 등이다.



돌봄플러스 협동조합 설립 및 브랜드 강화

특구사업단을 법인화해 2018년 5월 28일 돌봄플러스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돌봄플러스’를 어르신 사회서비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썼다. 온라인-오프라인(O2O)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돌봄식당에 개설한 스마트헬스케어(어르신 건강밥상+건강센터 운동+식생활개선 등)와 연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돌봄플러스’성과보고회

2018년 8월 28일, 특구사업의 성과를 나누기 위한 ‘돌봄플러스’성과보고회가 열렸다. 광진구청을 포함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 상근자, 사회적기업 관계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3년여 동안 추진한 특구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했다.

지역사회 전략체계 도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노인돌봄통합바우처’를 설계하고, 이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했다. 이를 위한 거점형 사회서비스 플랫폼(소셜프랜차이즈)으로서 돌봄식당 2호점(따뜻한 밥상, 중곡동)을 개설했다. 특구사업단은 이를 기반으로 2019년~2021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영양돌봄 및 건강돌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구사업 추진체계 구조화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 안정화를 위해 2017년 4월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담당자 1인까지 합류하여 3인 체계를 구축했다. 2016년 30회, 2017년 37회, 2018년 38회의 논의를 통해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했다.

협동사회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클러스터화

돌봄 사회서비스를 4개 영역(주거, 영양, 정서, 요양 돌봄) 12개 서비스로 리뉴얼하고 시용서비스 공급을 통해 고객 수용성 및 시장경쟁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또한, 신규 서비스(반찬배송서비스, 해충방제 서비스, 정리정돈 서비스, 향균·항바이러스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및 시용 서비스로 제공했다.

2018년 시범서비스인 향균·항바이러스 서비스를 주거돌봄 시용서비스 항목에 포함 및 시행하면서 전체 서비스 자부담률을 조정해 중위소득 140% 이상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비용 100% 적용하되,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는 40% 이하 상한선을 두었다.

돌봄식당 1호점(열린밥상) 운영

2016년 9월 돌봄식당 1호점(열린밥상)을 구의동에 개설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영양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돌봄 거점센터 역할을 했다. 클러스터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의 거점기능이 강화된 복합매장을 설계했지만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점포 환경, 부동산 임대료 시세, 맛있고 영양 있는 식재료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물리적인 여건 등이 규모와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돌봄식당 위탁운영 주체인 복지유니온의 자체 손실부담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독거노인, 1인 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식생활 취약집단에게 가장 절실한 식사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건강식을 제공하고 지역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돌봄 식당 공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건강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돌봄 서비스 정보 제공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되기 전에 개입하는 돌봄 전략으로, 식사를 매개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점심식사를 넘어 저녁식사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녁은 결식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식 바우처카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돌봄식당 2호점(따뜻한밥상) 운영

2018년 8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지점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중곡동에 돌봄식당 2호점(따뜻한

밥상)을 개설했다. 회원제 운영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데이터 관리. 회원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 등 예산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2021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노인 및 취약계층대상 무료 영양돌봄 제공 및 마을 주치의와 건강돌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 결식아동 위한 솔루션 역할

지역사회 및 민·관이 협업해 제도화된 서비스에 진입하지 못한 사각지대 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했다. 늘푸른돌봄센터(도우누리) 및 구청 희망나눔팀,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돌봄식당은 초기부터 관련 기관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다. 서울복지재단, 한국사회투자재단 등에서 사회적 프로젝트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7년 4월부터 진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1인 노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서비스 연결하는 솔루션 역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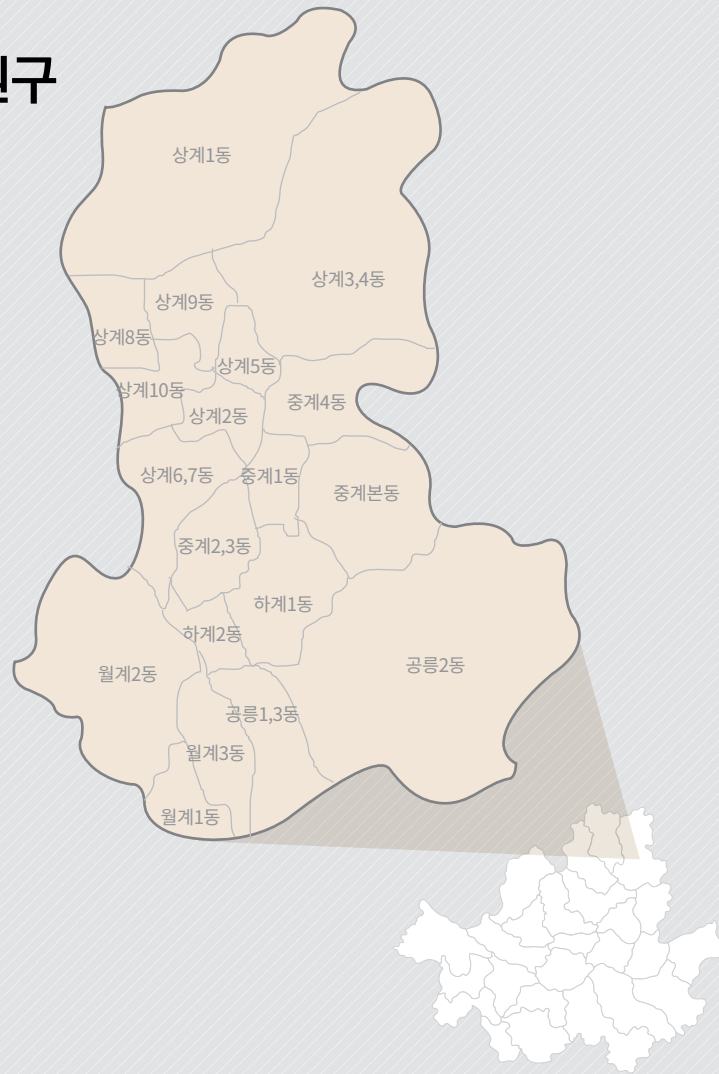
돌봄플러스 협동조합 설립

특구사업단은 2018년 5월 28일 돌봄플러스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이사), 주식회사 인스케어코어(이사), 주식회사 복지유니온(이사),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감사)가 임원으로 참여했다. 설립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영양, 정서, 운동, 거주편의 등이 바탕이 된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실현이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준비 중이다.

중장기 전략 수립

돌봄식당(공간)을 소셜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구의권역, 중곡권역을 넘어 자양권역뿐 아니라 광진구 외 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돌봄 서비스 기반의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 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이슈 해결과 일자리 창출(음식 조리 및 배송, 어르신 고독사 예방 역할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연구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작업한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및 지속 전략을 개발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되살림 사업연합을 통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노원구 ‘되살림 사업연합을 통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는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사업연합)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순환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는 첫째, 재이용 자원 순환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둘째, 되살림 사업연합을 통한 사업 역량을 강화하며, 셋째, 되살림 자원순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노원구 지역 내의 재이용품 기증이나 기증품 이용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원 재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재이용 자원순환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매장과 물품 보관 및 작업을 위한 공간(되살림가게 6곳)을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증물품 및 기증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수거 트럭을 구매하는 등 공동수거선별체계도 구축했다.

이처럼 노원구 특구사업단은 사회적경제 사업연합을 통해 공동 수거 및 선별, 판매, 교육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원순환과 부가가치 창출의 목적을 달성했다.

사업목적

- 재이용 자원순환 및 시민참여 활성화
- 되살림사업연합을 통한 사업 역량강화
- 되살림 자원순환 인프라 확대

사업성과



되살림가게
7곳



공동선별작업장
1곳



재이용기증품
405,475점



재이용품 구매자
78,696명

연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재사용 생활용품 판매장 설립·확대- 공동물류선별 시스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퇴직금가게 3개 신규매장 설치- 공동선별 작업장 1개소 설치퇴직금트럭/ 공동콜번호(930-6201)/ 전산시스템 3개 매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형 퇴직금 마을기반 활성화- 동단위 주민참여활성화기획사업- 노원구민참여 퇴직금장터운영-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형 퇴직금 마을기반 활성화- 마을기반 장터 4회/주민교육 1회- 노다지장터 2회/1,800여명 참여- 퇴직금사업&상계1동주민센터 협약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사업연합 활성화- 퇴직금사업연합 BI 공유·형성- 공동홍보물 제작- 퇴직금사업연합 지역사회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사업연합 활성화- 퇴직금사업연합 BI 5개 매장 통일- 공동홍보물 4종 제작- 퇴직금사업 지역 취약이웃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 조합원 교육- 사업설명·매장관리·자원순환학교- 선진사례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 조합원 교육- 교육프로그램 4개/조합원100%참여- 선진사례탐방 조합원 10명 참여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주민참여 활성화홍보- 재이용 생활용품 기증홍보/장터운영- 업사이클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주민참여 활성화홍보- 재이용 기증홍보 5회/장터운영 2회- 업사이클 공모사업 1회/50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가게 매장기능보강- 퇴직금가게 신규매장설치/전산- 퇴직금가게 VMD컨설팅/기능보강- 퇴직금가게 동별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가게 매장기능보강- 퇴직금가게 신규매장설치/전산 완료- 매장 VMD컨설팅/기능보강5개소- 퇴직금가게 동별마을사업 5회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연합 공동수거선별체계- 재이용품공공수거체계효율화- 공동선별작업장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연합 공동수거선별체계- 재이용품공공수거체계홍보 20회- 공동선별작업장 기능보강 2개공사

연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 조합원확대- 퇴직금 사회적경제 업종교육- 동북4구 조합원 확대- 퇴직금 Community Impact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 조합원 확대- 퇴직금 사회적경제 업종교육 1회- 동북4구 조합원 확대: 3개구- 퇴직금 Community Impact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주민참여 활성화홍보- 재이용기증홍보채널다각화/장터운영- 업사이클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주민참여 활성화홍보- 재이용기증 홍보채널개발/장터운영- 동북4구 업사이클 공모사업 1회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가게 매장기능보강- 퇴직금가게 동북4구 매장확대- 퇴직금가게 동별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가게 매장기능보강- 퇴직금가게 동북4구 매장 2개소- 퇴직금가게 동별마을사업 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연합 공동수거선별체계- 재이용품 공공·민간수거체계 확대- 동북4구 공동선별장 확대·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사업연합 공동수거선별체계- 재이용품 공공·민간수거체계 확대- 동북4구 공동선별장 확대·설치

노원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2018년 기준)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역할	비고
1	퇴직금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장원봉	총괄	퇴직금사업 이사회
2	사랑의 손맛	대표	백미선	이사/ 자원봉사	
3	노원나눔의집	대표	오상운	퇴직금사업 이사	
4	노원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여광천	자원연계/자원봉사	
5	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원	김종일	이사/자원봉사	
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우순영	이사/자원봉사	
7	한국자원순환사업	상임이사	이동현	자원연계/ 자원봉사	생산자조합원
8	아름다운가게 노원공점	매니저	임정희	정보공유/ 연계홍보	
9	퇴직금가게 든든한이웃	대표	이경선	사업연합 참여	
10	퇴직금가게 자연터	운영위원	강현경	사업연합 참여	
11	퇴직금가게 동네방네	팀장	권영지	사업연합 참여	
12	퇴직금가게 작은나무	총괄매니저	강은정	사업연합 참여	
13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심재현	특구사업추진전담부서	자치구
14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주무관	위성숙	퇴직금사업 전담부서	

노원구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구축

노원구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의제별 사회적경제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민관 공동의 실행 주체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2013년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자원순환, 먹을거리, 청소년, 보건의료, 문화예술, 장애인 분야를 6대 의제로 선정했다. 이중 예산투입의 시급성, 지역육구 등을 기준으로 노원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 운영위원들의 배점 투표로 자원순환, 청소년, 돌봄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 사회적경제 사업연합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5년 3월 되돌림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어 특구사업단은 준비기간 동안 3대 의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구사업단 구성

2015년 9월 민관 협력으로 노원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이 구성되었다. 사업단에는 노원구,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기관이 참여해 특구 본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했다.

분류	단체명	기관개요
자치구	(부서명)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팀	사회적경제사업 주무부서
	(부서명) 노원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주무부서
	(부서명) 노원구 여성가족과	먹을거리, 청소년지원 주무부서
문제해결 보유기관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되살림 네트워크 주체
	사회적기업 사랑의손맛	먹을거리네트워크 주체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 네트워크 주체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	청소년 네트워크 주체
지원조직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노원구 사회적경제통합네트워크
	노원구 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사회투자지원재단	정책, 교육, 생태계조성 전략
	재활용 대안기업연합회 사무국	자원순환 정책 연계 및 전략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공급자 기초조사

특구사업단은 중점의제로 설정한 돌봄의제와 관련해 2015년 9월~11월 노인 돌봄수요 실태 및 공급자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전달 체계간의 사업연합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돌봄 분야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돌봄의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9월~10월 워크숍을 진행했다.

되살림 매장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015년 11월 특구사업단은 자원순환 의제와 관련해 재이용품 수거처 확대를 위해 이동형 기부박스를 제작하고 ‘되살림 수거처’ 온라인 지도를 제작했다. 이동형 기부박스는 지역 내 공공기관,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에 설치되었다.

청소년 직업 연계 사회적경제 인턴십

청소년 의제와 관련해 1차(9월~10월), 2차(11월~12월)에 걸쳐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인턴십을 진행했다.

교복나눔장터 행사

특구사업단은 2015년 12월 교육청, 노원구청 교육지원과와 함께 ‘교복나눔장터’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순환(되살림)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되살림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특구사업단은 자원순환 의제를 중심으로 사업연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익을 창출해 돌봄, 청소년 의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특구사업 전략을 채택했다. 이에 해결하려는 지역문제로 6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 ① 재이용품 기증 및 이용경험이 낮다.
- ② 자원순환 인식이 부족하다.
- ③ 재이용 자원순환을 위한 매장 부족하다.
- ④ 기증물품 보관 및 작업공간이 없다.
- ⑤ 재이용 매장이 영세하고, 개별 운영에 한계가 있다.
- ⑥ 투명한 기증물품 관리 및 기증자 관리가 절실하다.

서비스 공급 (판매체계)

- 되살림 가게 7개 매장
- 마을별 · 거점별 녹색장터 개설
- 되살림 트럭(이동형 녹색장터)

재이용품 상품개발

- Recycle · Upcycle 작업장 조성
- 지역공방연계 상품개발 및 위탁판매
- 알라딘 및 대형상가 등의 기업연계 판로 구축
- 행사 및 on/off line 판매망 형성



수요자 & 공급자

- 노원구민 58만
- 공공 및 민간거점 기부처
- 생협매장, 어린이집, 유치원, 금융기관, 종교기관, 녹색장터 등 기부 협약

수거체계 형성

- 매장 방문기증
- 공동수거 (되살림 트럭운영) 사업단
- 노원지역 공동배달 사업 연합체 설립
- 공동 풀 번호 운영

물류 선별 공급

- 공동선별 및 작업장 운영
- 취약계층 사회통합 일자리 연계
- 서울시 의류선별 플랫폼사업 연계

수익창출 : 되살림 사업연합 활성화 기금 형성 및 사회환원
(장애인 · 청(소)년 노동통합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노인 치과진료 지원 · 자원순환 캠페인 · 주민교육 등)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연합 형성

특구사업단은 2016년 5월 30일, 참여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을 주축으로 노원 지역의 되살림 사업연합을 형성했다.



재사용 생활용품 매장 설립 확대

근린생활권 거점매장을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높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되살림가게 3곳을 개설했다. 직영 1호점 ‘되살림가게 작은나무(상계1동)’는 2016년 1월, 직영 2호점 ‘되살림가게 등대지기(상계3, 4동)’는 12월에 각각 문을 열었다. 노원지역 자활센터 연계 매장이 ‘되살림가게 동네방네(상계9동)’는 10월에 오픈했다.



공동 물류선별시스템 구축

소규모 재이용매장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 물류선별시스템을 구축했다. 물류센터 부지로 구유지(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22-50)를 확보하고 시설공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아름다운가게의 용답동, 의정부, 남양주 물류센터를 탐방해 선진사례를 습득했다. 공동물류 및 수거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되살림 트럭’도 장만했다. 전산시스템으로 투명한 판매 및 재고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거체계를 수립했다. 매주 수요일 거점 기부처를 순회해 주민들이 기부한 재이용품을 수거하고, 공동 콜번호(02-930-6201)를 통한 방문수거도 주 2회 실시했다.



주민참여활성화 기획사업

주민참여형 되살림 마을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1개 단지, 초등학교 연계 장터 1회, 동 자원봉사캠프 연계 장터 1회, 사회적경제제한마당 장터 1회 등 동 단위로 마을장터를 4회 진행했다. 되살림가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되살림 교육도 실시했다. 연 2회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노다지(노원에서 다시 쓰는 지혜)’장터를 운영했다. 연인원 1,800여 명이 장터에 참여해 되살림 사업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되살림 사업연합 체계적 운영

본사업 2년차는 되살림 사업연합의 내부역량을 키우고, 체계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자원순환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일본 사업장을 탐방했고, 조합원 교육을 통해 탐방 경험과 되살림가게 운영 전략을 공유했다.

되살림가게 매장 및 공동선별장 기능을 보강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마련했고, 지역관계망을 확대해 주민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꾀했다.

되살림 사업연합 선진사례탐방

2017년 6월 14일~17일 되살림(자원순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해 일본 'WE21 JAPAN'을 방문했다. 이곳 마을기반 되살림 활동 사례를 통해서 주민 참여형 되살림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교육

2017년 7월, 11월 특구사업단의 주축인 되돌림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이 진행되었다. 1차 교육에서는 사업연합의 일본선진사례(WE21 JAPAN)방문 보고회와 사업연합의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2차 교육에서는 되살림가게 매장운영전략 및 자원봉사자관리, 마을기반 자원순환활동의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되살림물류선별장 및 조합원매장 순회방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되살림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 대상으로 재이용 생활용품 기증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 플래카드 등을 제작해 부착했다.



9월 23일 노다지장터에 참여해 ‘되살림 기증도서전’을, 12월 20일에는 ‘되살림가게와 함께 하는 업사이클 손작업 교실’을 진행했다.

되살림가게 매장기능 보강

노원역 지하에 되살림가게 신규 매장을 개설했고 전산화 체계를 보강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역 되살림가게는 기증활성화, 판매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되살림가게 활성화를 위해 VMD(Visual Merchandising Display) 컨설팅을 통해 매장 기능을 보강했다. 이를 계기로 되살림가게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뒀다.



되살림 관계망 확대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과 노원교육복지재단,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인 ‘노원건강마을 프로젝트’협약을 체결했다.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은 기금조성,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기금관리 및 대상자 발굴,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진료를 맡았다.

특구사업단은 또한 지역주민과의 협약에도 힘을 쏟았다. 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커뮤니티 ‘노원맘스’와 지역 내 자원순환활동 협력을 추진했다.



공동 수거·선별·공급 체계화

노원구 19개 주민자치센터와 노원구청과 함께 기부 데이(매월 20일)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기부 재이용품 수거를 한층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를 지역거점별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순환 사업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었다.

공동선별장 기능도 보강했다. 물류 박스, 적재 박스 등을 제작했고, 작업공간을 한층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



되살림 사업연합 활성화

본사업 3년차의 목표는 2년차까지 기반을 다진 되살림 사업연합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는 데 맞췄다. 사업연합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되살림가게 운영 시스템 정비, 공동선별장 운영 개선 등의 사업을 펼쳤다.

수익의 사회 환원도 실천해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되살림 사업연합 역량강화

특구사업단은 되살림 사업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2018년 10월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자원순환학교’를 개최했다. 자원순환 현안을 이해하고 되살림가게 운영원칙을 수립하는 자리였다.

사회투자지원재단에 의뢰해 되살림가게 이용자를 대상으로 되살림 사업이 끼친 지역사회 영향력(Community Impact)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되살림 지역사회영향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들의 재이용품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되살림가게 홍보 동영상 제작했고, 수제비누, 냉장고 자석 배지,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2018년 10월 20일에는 되살림 특화장터인 ‘노다지(노원에서 다시 쓰는 지혜)’ 장터를 운영하며 되살림 기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참여해 기부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되살림가게 인프라 확대

되살림가게 공백지역 해소를 위해 신규 매장을 중화역 부근에 설치했다. 본사업 2년차에 이어 전산화 및 매장 기능 보강 작업을 이어갔다.



공동수거·선별·공급 체계화 및 운영 안정화

공동선별장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사업단과 연계해 자활근로 인력 4명을 투입했다. 내부 작업공간을 보강해 선별, 물류작업의 효율화를 꾀했다.

되살림 물류 공급 전산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품목별, 매장별 표준 가격을 책정했고, 물품순환 주기를 5주로 해 매주 다른 색상의 가격표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공급시기를 파악해 매장에서 판매를 촉진하고 매장 간 물품순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되살림가게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은 특구사업단의 중요한 목표였다. 이를 위해 특구사업단은 되살림수익나눔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8월 14일 그동안 조성한 수익나눔사업 기금과 집행 현황을 보고했다.

기금으로 노원복지재단과의 협약사업인 ‘노원건강마을프로젝트(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을 지원했고, 노원구 자원순환과 제안사업(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으로 공릉1동 지역의 폐지 수거 어르신 4명에게 손수레를 제공했다.



생활용품 재사용 수거체계 확립, 재사용 순환 시스템 강화

거점 수거처를 확대해 재사용품과 폐기물 분리 배출 체계를 구축했다. 재사용 생활물품의 기부 및 분리 배출을 통해 재사용 문화를 형성하고, 되살림가게 운영으로 재사용품 판로를 개척했다.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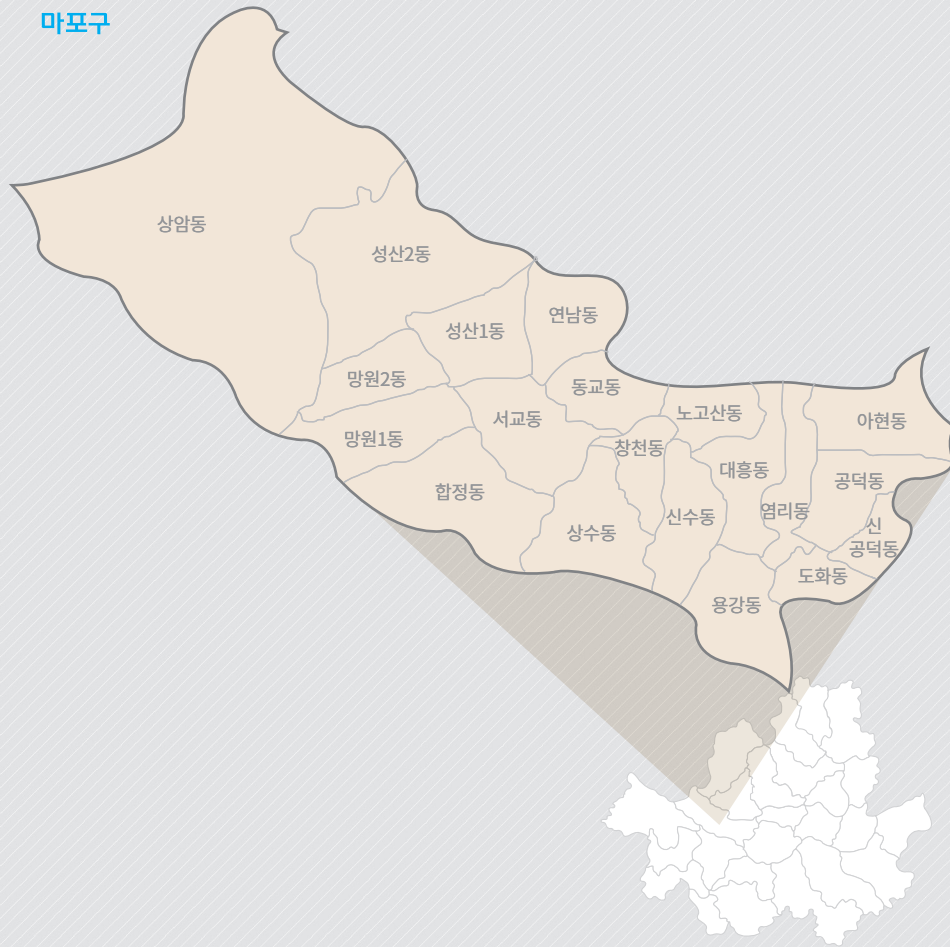
자원순환 분야를 주민들 삶과 밀착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 시장 영역을 확대했다. 사업연합 방식으로 공동선별장 및 되살림가게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연계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단초를 마련했다.

되살림 사업영역의 권역 사업으로 확장

노원구에서 구축한 자원순환 시스템(공동 수거, 물류)을 동북4구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서울시 자원순환 분야의 사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노원구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의 사회환원

매장, 물류, 폐기물 처리, 장터 등을 통해 발행한 수익을 공동기금화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자원순환 의제를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화해 다른 지역 의제 해결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홍대 앞 문화예술특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구축사업

마포구 홍대 앞 지역은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지역 예술가, 지역상권,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대 앞 문화예술특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은 홍대 앞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적이고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마포구 특구사업단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신규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수요층 발굴, 수익모델 안정화, 지역일자리 확대 등의 사업을 펼쳤다. 예술가와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의 소상공인의 공동 비즈니스기반을 조성했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홍대 앞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유형 문화예술 생산기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사업목적

지역 내 문화예술주체들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예술가,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홍대 앞 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문화예술주체들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증진
- 예술가, 사회적기업, 지역소상공인 간 공동비즈니스 기반조성
- 예술가-시민 참여+공유형 문화예술생산기지로서의 ‘홍대 앞’ 조성

사업성과



탐방&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23**개



문화예술인 강좌
개발 **28**개



비즈니스 콘텐츠
플랫폼 개발



거점공간
구축

연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지역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역 문화예술체험교육 사업 - 일반 시민·청소년 300여 명 참여
	•지역 문화예술탐방 사업	•지역 문화예술탐방 사업 - 호스트 및 여행 콘텐츠 기획 워크숍 60여명 참여, 관련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강화 사업	•지역예술체험교육 사업(문화예술 오픈스쿨) 콘텐츠 개발, 운영 - 20여개 문화예술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단체 참여
	•거버넌스 간담회 및 포럼	•특구사업단 구성
	•예비특구 조사연구 사업	•예술탐방/ 예술체험교육 사업 - 호스트, 강사로 예술가 참여
	•사업 컨설팅	
2017년	•홍대 앞 문화예술특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	•12개 프로그램 운영 - 84회차 진행(유료판매 70회차), 참여인원 800여명
	•홍대 앞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조직, 학교, 문화예술 모임 및 개인 참가자 등 20개 단체 참여
	•거점 공간 구축	•거점공간수요조사 시행, 지역자산화 로드맵 구축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역자산화 TF구축 운영(3개 협동조합 연합)
2018년	•홍대 앞 문화예술특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	•8개 프로그램 운영 - 40회차 진행, 참여인원 350명 이상
	•홍대 앞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2017년 프로그램 연계 및 추가 프로그램 개설 - 강의 전면 유료화 및 참가비 증액,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발행 책자와 연계한 강의 개발
	•거점 공간 구축	•복합문화공간 ‘라운드트’(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93) 개설
	•지역 거버넌스 구축	•플랫폼 사이트 ‘스타카토 H (www.staccatoh.com)’개편

마포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2018년 기준)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역할
1	마포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진주	사회적경제분야 (위원장)
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과장	추연호	공무원
3	마포구 관광과	과장	양선주	공무원
4	사회적경제특구사업단장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문식	문화예술분야
5	(주)티팟	대표	조주연	사회적경제분야
6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대표	송덕호	사회적경제분야
7	사회적기업 착한여행	대표	나효우	관광분야
8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공병각	주민대표
9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	이채관	문화예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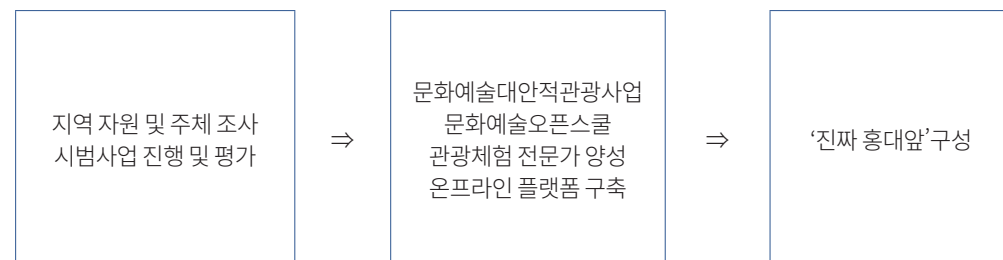
사람들의 문화예술도시 '진짜 홍대 앞' 재구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갈수록 홍대 문화예술계가 위축되고 있고,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날로 높아지는 임대료 문제가 크지만 관광객 증가에 비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대표하는 대안적, 창의적 콘텐츠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다.

특구사업단은 이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홍대 앞 문화예술 인적자본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화를 통해 대안적 문화예술 관광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 오픈스쿨을 운영하고, 지역 내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로 네트워크 기반을 추진해 문화예술 기반의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구사업단은 2015년 조직을 구성하고, 우선 주체별(수요자, 공급자) 인식과 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함께 포럼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특구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알렸다. 준비사업 기간에 인적자본 기반의 문화예술관광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구사업단의 주력사업은 4가지로 요약된다. 대안관광사업(마을기업 형태의 문화관광 여행사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 오픈스쿨 운영(문화예술교육 공동사업체 설립 및 운영), 전문가 양성(관광체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완성 및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홍대 앞 문화예술 대안 공간 및 문화포털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이다. 3년 6개월간의 특구사업을 통해 '진짜 홍대 앞'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구사업단 구성 및 운영

특구사업단은 조직을 구성하고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며 주요사업 기획을 기획하고 예비특구 본사업을 준비했다. 세부사업 논의를 위해 2015년 10월 워크숍도 진행했다.

조사·분석·연구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먼저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와 관련해 2015년 9월~10월 기존문헌을 조사했다. 이어 문화관광 사업의 수요자 연구와 함께 문화예술 콘텐츠 공급자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도 진행했다.

사업계획 수립

조사와 9월~11월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홍대 인적자본 기반 문화예술 관광·체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타 지역 문화관광 사례 조사, 사업자문 등을 통해 본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시범사업 <Are You Ready? 진짜 홍대 앞?> 진행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 문화관광 시범 프로그램, 예술 체험 프로그램, 영역별 · 통합 포럼, 워크숍 등 통합적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일정	내용
2015.11.1~11.30 (4회)	예술가와의 홍대 앞 나들이 '홍대 앞 길 위의 도슨트'
2015.11.1~11.30 (4회)	문화예술 오픈스쿨 I : 홍대 앞 작가들의 퍼포먼스와 커뮤니티 아트 결합 프로그램(성인 대상, 1회당 20~30명)
2015.11.1~11.30 (6회)	문화예술 오픈스쿨 II : 문화예술 체험 워크숍(청소년 대상, 1회당 20~30명)
2015.9.14~11.30 (12회)	진짜 홍대 앞 컬처스쿨 : 홍대 앞 문화예술 주체들이 창작자를 넘어 지역 내 콘텐츠 생성, 공급, 운영, 관리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교육과정
2015.10.15~11.16 (4회)	홍대 앞 지역 리더 관계형성을 위한 워크숍
2015년 11월말 (1회)	홍대 앞의 현안해결과 변화를 모색하는 시민포럼



체험, 탐방, 교육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밑그림

본사업 1년차에는 지역 문화예술 체험, 지역 문화예술 탐방,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등 3대 사업을 주축으로 진행했다. <H.art School(하트스쿨)>, <H.art Road(하트로드)>, <H.artist Academy(하티스트 아카데미)> 등 체험, 탐방, 교육을 통해 지역주체들이 만드는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의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이는 향후 마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의 핵심인 문화예술 특화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자원 및 소비자 기호 조사를 위한 연구조사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지역 문화예술체험 교육 <H.art School(하트스쿨)>

2016년 10월 10일~29일 지역 문화예술체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H.art School(하트스쿨)>이 열렸다. 하트스쿨은 주민들에게 지역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마포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케팅 협동조합 살림과 힐링필링 협동조합의 컨소시엄이 진행한 하트스쿨에서는 은반지/은팔찌 만들기(힐링필링공방), 켄메와 드림서클(아토), 나만의 요리어플(즐거움요리세상), 이상한나라

의 우리들(고은결), 캐리커처 그리기(말하는 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각 프로그램별로 지역 예술단체 및 강사들이 참여했다. 5개 분야별로 각 5회씩 진행되었고, 250여 명의 주민이 문화예술을 체험했다.

이 사업을 통해 홍대 앞 문화예술 창작자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실행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향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이를 위한 플랫폼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 문화예술 탐방 <H.art Road(하트로드)>

2016년 10월~11월, 3개 프로그램에 걸쳐 총 6회의 지역 문화예술 탐방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이끄는 참여형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의 예술가, 상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공동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자기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 콘텐츠를 제공했다.

구분	홍대 드로잉 투어	라이브클럽 투어	공방 투어
투어명	밤별과 함께 떠나는 홍대 스트리트 드로잉	홍대 뮤지션이 안내하는 라이브클럽 투어	연남동 공방 투어
내용	‘연트럴파크’에 앉아 사람, 풍경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로잉을 통해 홍대를 바라보고 그려보는 체험	홍대 아티스트가 직접 안내하는, 홍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케이팝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	홍대 일대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공방 방문,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멋진 여행 기념품 만들기
로컬 호스트	허영윤	박준형	조성진
소요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인원	11명 (외국인 4, 내국인 7)	20명 (외국인 9, 내국인 11)	9명 (외국인 3, 내국인 6)
횟수	2회	2회	2회

이 사업을 통해 먼저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대 앞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장소 중심의 여행이 아닌 홍대 일대 주민 및 예술가들의 관심사와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홍대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홍대 문화예술여행 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로컬호스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둘째,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기여형 문화예술 체험여행을 발굴했다. 홍대의 숨겨진 지역이야기, 지역민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로컬여행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었고, 내, 외국인 관광객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안적 여행문화 콘텐츠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지속적인 로컬가이드 투어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셋째, 홍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및 문화예술인의 자기고용 증대 및 신직업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홍대 지역 주민 및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험과 재능을 공유해 투어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안내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기반의 공유여행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로컬 여행(local travel)’을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었다. 공급자(로컬호스트)와 소비자(관광객) 모두에게 홍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및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넷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홍대 문화관광 기반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도였다. 향후 홍대 일대 로컬가이드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기에 ‘경험’을 입히는 큐레이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내에서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H.artist Academy (하티스트 아카데미)>

2016년 11월 2일~18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사업인 <H.artist Academy (하티스트 아카데미)>가 열렸다. 이 사업은 홍대 앞 지역의 분야별, 의제별 주요 인적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 탐방, 예술 체험 교육 사업의 실행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심화반			
대상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획자, 창작자, 활동가 등		
내용	문화예술 교육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워크숍	나만의 여행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지역여행사업 호스트 교육 워크숍)	세상과 소통이 어려운 아티스트를 위한 마케팅 첫걸음 (창작물 활용 콘텐츠 브랜딩 및 마케팅 교육 워크숍)
세부 일정	콘텐츠에 가치를 더하다	매력적인 여행 콘텐츠 기획과 스토리텔링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brand, branding)
	사용자 중심의 문화 디자인	여행자의 눈을 사로잡는 콘텐츠디자인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communication)
	어소시에이션-공연기획에서 삶의 기획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 브랜딩 구축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market, marketing)
기초반			
대상	홍대 앞 문화예술 활동 주체 및 소비자, 시민 등		
내용	홍대 앞을 만든 사람들 _ 크라잉넷부터 혁오까지 홍대 앞이 낳은 스타들로 짚어보는 홍대 앞 인디음악의 역사		

과정은 심화반 9회, 기초반 1회 진행되었고, 연인원 120여 명이 강좌를 수강했다. 예술활동 외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문화예술인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수업에 참여했고, 대체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개념, 지식을 습득한 것에 만족감을 보였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였다. 해당 강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여행상품을 등록하고 지역을 안내하는 로컬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지역포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 이를 통한 상생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1월

19일~12월 3일 간담회 및 지역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민-관, 민-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의 구체적, 현실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지역주체 연속 간담회			
구분	홍대 앞 인디음악씬 간담회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관련 토론회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진행사례 공유 및 간담회 (광진구 사례 공유)
일정	11월 19일 라이브클럽 뽕	11월 24일 미디어카페 후	12월 3일 미디어카페 후
참석 인원	뮤지션, 공간운영자, 관계자 30여명	특구사업단 및 홍대, 마포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10여명	특구사업단, 마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 20여 명
내용	- 홍대 앞 인디음악씬에 대한 발제(문제 및 해결 방안) - 인디음악씬 4주체간의 관계성 강화에 대한 토론 - 인디음악씬 활동을 위한 기본 가이드 공동 작성 및 공동 제안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의 진행경과 및 상황 공유 - 참여주체들 중간평가 - 컨설팅 내용 공유 - 예비특구 사업의 목표와 전망에 대한 토론	- 광진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진행 사례 발표(박용수 광진구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지역 포럼			
일정	- 12월 3일. 미디어카페 후 - 특구사업단, 마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 공동주최단, 홍대-마포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주체 등 30여명 참석		
내용	- 2016년 마포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진행 경과보고 - 세부사업 경과보고 - 조사연구 경과보고 - 아카이빙 영상 상영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조사연구

2016년 10월~12월, 홍대지역 문화예술 산업 소비자층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벌였다. 조사연구는 공간운영자, 인디음악씬 소비자 대면 인터뷰, 소비자 참여 워크숍,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 다면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이해관계자 간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상품,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했다.

연구조사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량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방적인 관계를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인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한 산업(사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평등한 소통과 생산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외부전문가 컨설팅

특구사업단은 사업방향과 기획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기 위해 2016년 10월~12월, 이경하(씨스톤 컨설팅 대표), 조주연(사회적기업 티팟 대표), 한성휘(슬로워크 선임연구원) 등 3명의 컨설턴트로부터 9회에 걸쳐 영역별 자문을 받았다. 자문내용은 사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실행,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의 현실적 목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경제 및 경영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식 등이었다.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특구사업단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주체들이 얻을 수 있는 현실적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사업 주체들 간 역할을 분담하고 거버넌스-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던 것도 소극이었다. 또한 문화예술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콘텐츠 다양화, 플랫폼 및 브랜드 구축

본사업 2년차 목표는 신규 관광 콘텐츠 및 소비자 발굴, 공동수익사업 개발 및 협업 강화, 예술가 및 지역주민의 주도성 강화였다. 이를 통해 개방, 참여, 협동의 가치에 기반 한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구체적으로 홍대 팡 문화예술 특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점 공간 구축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비즈니스 콘텐츠와 참여주체들이 다양화되고 양적, 질적 성장을 일궜다. STACCATOH(스타카토H) 브랜드를 구축했고, 본격적인 유료화 모델 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수익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홍대 앞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사업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역 주체들과 함께 경험함으로써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문화예술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공모사업

홍대 앞 및 마포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사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모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공모는 5월 18일~28일 진행되었고, 6월 2일 선정팀을 발표했다. 총 15개팀이 참가해 이중 4개 분야, 8명(팀)이 선정되었다.

유형	선정팀
문화예술 특화 모임, 워크숍 패키지 개발 운영	와우살롱 최나겸
특정주체 대상 홍대 앞 탐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문화 다방 / (주)문화지형연구소 씨티알 / 마인드 트립 이현정 / 카페 언플러그드
가족 대상 홍대 앞 문화예술 교육체험 패키지	네스트 나다 / 창작집단 움스
홍대 앞 문화예술 비즈니스 콘텐츠 자유공모	하나래&이제경

이들 선정팀은 이후 3개월간 84회차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540명 이상이 참여했다. 투어 형태로 진행된 홍대 쿨링, 홍대 끝 답사기, 홍대 마음 산책회, 홍대 유람기 등은 홍대 앞과 상수동, 연남동의 지역특성 공간들을 탐방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시각으로 본 지역과 예술가들의 상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 체험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홍대 앞과 주변 공간이 소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소통해 나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구사업단 컨소시엄 주체인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한 지역 투어프로그램인 ‘마포만보’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동 주체와 장소 탐방으로까



홍대 마음산책회

지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탐방과 워크숍 콘텐츠를 발굴해 공연, 전시 등 기존 문화예술 활동들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특히 유료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홍대콜링투어



홍대끝답사기



아빠와 몸플



홍대유람기



마포만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홍대 앞 일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기획자가 자생·자립적으로 문화예술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7년 10월~12월 4개의 프로그램, 11개의 강좌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었다.

프로그램명	강좌/강사
STACCATO H MEDIA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도비 프리미어로 배우는 영상편집/ 신영준(Team OHIOH) • 0에서 시작하는 수제포스터/ 박지연 미술세계 디자인팀장
STACCATO H MIND 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담소 워크숍/ 김우진 그린 디자이너 • 몸을 부드럽게-바디 소프트닝/ 최하란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 • 마음을 부드럽게-요가 후 누워서 듣는 공연/ 뮤지션 복태와 한군, 최하란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
STACCATO H OPEN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트리피케이션과 나의 작업/ 신제현 작가, 기록자 달여리 • 예술가를 위한 법률 안내서: 계약서편/ 신아람 변호사 • 셀프 브랜딩 / 노상호 작가 • 몇 년째 하십니까: 문화예술 비즈니스 운영의 난항과 비법/ 백지홍 미술세계 편집장, 하박국 영기획 대표
STACCATO H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에서 시작하는 실전기획서/ 박광철 기획자 • 스스로 명함 만들기/ 하지훈 studio artist • 문화예술비즈니스 특화 공모주체 워크숍/ 정진세 극작가,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인적자본 강화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구 세부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주체를 양성하는 순환구조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수요에 부응한 콘텐츠의 다각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비즈니스 콘텐츠 플랫폼 <STACCATOH(스타카토H)> 구축

문화예술 기반 비즈니스 콘텐츠 플랫폼이자 지속가능한 홍대 앞 문화예술, 지역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고민하는 브랜드인 <STACCATOH(스타카토H) www.staccatoh.com>를 구축했다. 악상기호인 ‘스타카토’처럼 톡톡 튀는 홍대 앞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탐방, 체험, 워크숍 콘텐츠를 망라했다.



거점공간 조성 준비

홍대 앞의 급속한 상업화, 임대료 상승 등으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주체들의 공유 공간이 요구되었다. 이에 특구사업단은 홍대 앞 문화예술분야 비즈니스 및 지원사업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펼쳤다.

마포구의 3개 협동조합(삼십육점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진행하는 우리동네 지역자산화 TF의 지역공유공간 조성계획과 연계해 거점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4차례의 간담회, 지역포럼이 진행되었다.

거점공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문화공간지도(STACCATOH Map)도 제작했다. 지도는 홍대 앞 연표, 권역별 지도(동교&서교, 연남&성산, 상수&합정) 순으로 구성되었다.

수익성 강화 및 사업 모델 활성화

본사업 3년차는 지난 2년간의 본사업 기간 동안 개발된 문화예술 비즈니스 콘텐츠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사업모델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사업 브랜드·콘텐츠 플랫폼인 ‘스타카토H(STACCATO H)’에 대한 홍보와 운영활성화에 집중했다.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실행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꾀했다. 마포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해 홍대 앞의 문화예술로 시작해서 마포 전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다.

‘STACCATO H’아이디어 파티

맛집, 카페, 작업실, 문화공간들을 기반으로 한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문화예술 원데이 워크숍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4월 11일, 마포 문화비축기지 내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상암소셜박스’에서 ‘STACCATO H 아이디어 파티’를 열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가들과 지역의 아이디어가 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STACCATO H’가 유연하게 지역의 이슈나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되도록 했다.

4월 18일까지 투어 4개, 워크숍 9개의 콘텐츠가 접수되었고, 5월 1일 투어 2개, 워크숍 4개(총 6개팀)가 선정되었다. 여기에 기존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해 본사업 3년차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5월~12월 총 40회 진행되었고, 3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제목	내용	진행
홍대 유람기 (기존 프로그램)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홍대 공간 투어와 홍대 인디문화의 해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소비적으로만 홍대를 인식하고 소비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공연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진로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음악공연관람 + 투어 프로그램 - 탐방장소 : 경의선 책거리, 홍대 오브젝트, 산울림 소극장, 카페 언플러그드	카페 언플러그드
홍대 끝 답사기 (기존 프로그램)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인 홍대앞의 변천사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투어. 상수동 골목의 이야기와 함께 그문화다방의 명물인 뱅소를 만들어 먹는 투어+체험 프로그램 - 탐방장소 : 상수역 4번출구, 상수리 Bar, 제비다방, 탐라식당, 이리카페, 어쿠스틱 갤러리, 스페인 식당 까리뇨, 로스팅마스터즈, 슬런치 팩토리, 당인리 발전소, 그문화다방	카페 그문화다방
나의음악 레시피	일일 싱어송라이터 되기 워크숍, 뮤지션의 도움을 받아 16마디의 짧은 사연곡을 만들어 보는 협업 프로그램	남수한 모리스 호텔
먹기명상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먹기 명상” 음식 명상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	이현정 마인드트립
스마트폰 여행영상 만들기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들을 위한 투어+워크숍 망원동을 거닐면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며 스마트폰 여행 영상 만들기	박용훈 아날로그 영상 pd
연시홍시	평소에 시에 관심이 있거나 마음이나 일상을 시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산책과 함께 시와 친해질 수 있는 창작 팁 제공 프로그램	권창섭, 양지양, 석지연
혼술요가	맥주와 요가의 만남, 이색적인 액티비티의 관심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어울리는 콘텐츠로 건강과 함께 리프레쉬한 느낌을 받게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주원, 황민지, 박로와, 홍갑
홍두리 탐험대	자립음악가 한밤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함께 하는 홍대앞 문화예술 공간 투어. 홍대 앞의 사라진 공간과 남아있는 공간을 둘러보며 도시 문제를 자각하고,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 - 탐방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홍대앞 놀이터, 명월관, 삼거리포차, 비닐, 컨벤트, DGBD, 상상마당, 서교365번지, 두리반	한밤 (김마스타)



나의 음악레시피



스마트폰 여행영상 만들기



연시홍시



홍대유람기



홍두리 탐험대



잔다리페스티벌 콜라보레이션 투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적자본 강화

본사업 3년차 인적자본 강화 사업은 2017년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모든 강좌를 유료화하고 참가비도 증액해 수익모델을 강화했다. 4월~12월 12개 강좌에서 22명의 강사가 37회 수업을 진행했고, 410여 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명	강좌/ 강사
STACCATO H WRITING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기획자를 위한 글쓰기 워크숍/ 차우진 문화평론가 스트리트H와 함께하는 에디팅 스쿨/ 정지연 스트리트H 편집장(특강: 염은영 빅이슈 에디터)
STACCATO H MEDIA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포스터 디자인 워크숍/ 정지현 김영상 북디자이너 어도비 프리미어 영상 편집 배우기 vol.2/ 신영준 영상 PD 독립출판 A-E/ 박지연 디자이너, 이보람 헬로인디박스 서점지기, 최병호 FACTORY 공동대표
STACCATO H MAKER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저하예방기구 설계 실습/ 류승완 메이커커뮤니티 'month'대표 처음 해보는 해킹/ 류승완 메이커커뮤니티 'month'대표
STACCATO H OPEN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몇 년째 하십니까: 출판/ 신우승 전기가오리 운영자, 박지수 <VOSTOK> 매거진 편집장 예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부동산 임대차 편/ 신아람 변호사 셀프 브랜딩/ 강은영 (식물상점 운영자), 정인지, 이우재, 이규찬 (효자맥주) 몇 십 년째 하십니까/ 박정용(벨로주 대표), 공윤영(잔다리페스타 대표)/진행 신현준(아시아 대중음악 평론가)
STACCATO H 출간 연계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가로 살기로 마음먹은 당신을 위한 D.I.Y. 뮤직 가이드/ 박준철, 천학주, 오주환



스트리트H와 함께 하는 에디팅스쿨



포스터디자인 워크숍



독립출판 A-E



DIY 뮤직가이드 강의

수강 후기

글쓰기 역량이란 강의를 수강하는 것만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많은 양의 글을 쓴다고 해결되지도 않더라고요. 정지연 편집장님과과의 에디팅 스쿨은 잡지 에디팅에 대한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방식과 이를 위한 예비 단계, 접근 방법, 인터뷰 결과를 글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주 과정 마지막에 진행되었던 특강(강사: 염은영 에디터) 역시 잡지 기획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전해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인터뷰 글쓰기에 대한 가이드를 원하는 지인에게 추천할만하며, 향후 잡지 기획과 관련한 심화 강의도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스트리트H와 함께하는 에디팅 스쿨> / 하민철

강의가 주거와 상가(사업자가 있는 경우: 작업실, 공방 등 포함)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두루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맡으신 신아람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임차인이 알아야 할 법률부터 실제 케이스 스터디, 표준계약서까지 다루셔서 처음 임대차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질문시간도 넉넉히 주셔서 다른 수강생 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계약서를 보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의 책자의 내용도 실해서 잘 두고 참고하며 쓸 생각입니다. 라운트 1층의 열린 공간도 정말 좋아서 (그리고 아주 귀여운 고양이도 있습니다) 하루를 투자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에서 얻은 지식을 주변에 나누고 나중에 강의가 또 열린다면 수강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예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부동산 임대차 편> / 정채현

독립출판과 편집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어요. 강의해주신 두 분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직접 일하시면서 경험하신 부분에 대한 팁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참여하고 싶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요!

<몇 년째 하십니까: 출판> / 최민정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정말 많습니다. 음악을 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진솔한 강의를 준비해주신 강연자분들 모두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기획한 STACCATO H에도 무한 감사를 표하며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D.I.Y. 뮤직 가이드> How to start without fear? / 고경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비즈니스 기반 조성

3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했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주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당사자 비즈니스의 단조를 마련했다.

거점공간 '라운트' 조성

본사업 2년차부터 준비해온 거점공간 구축사업이 복합문화공간 '라운트(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93)' 조성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수요층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만이 아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콘텐츠를 고민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선순환구조에 대한 지역차원의 고민과 집단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선결과제와 가능 조건을 확인했다. 세부사업별로 수요층을 대면하면서 향후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실행 시 수요 타겟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 것도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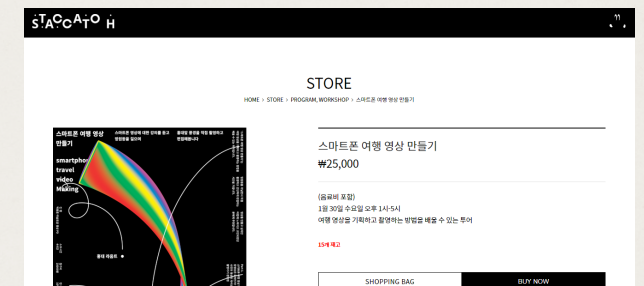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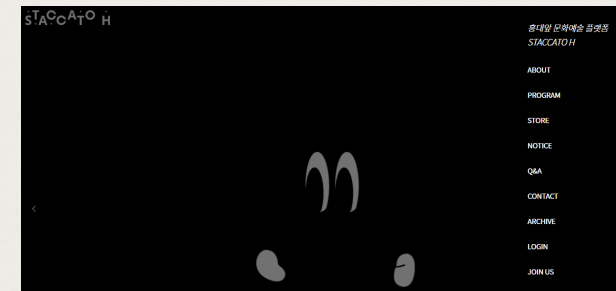
브랜드 플랫폼 'STACCATO H' 구축

2017년 개발된 브랜드 플랫폼 'STACCATO H(스타카토 H)'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수요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유료화 모델 실험과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도전, 유사 업체들에 대한 리서치 및 특화된 브랜딩, 마케팅 등을 고민하며 '지역의 존재가치'를 사업모델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플랫폼 스타카토 H(www.staccatoh.com)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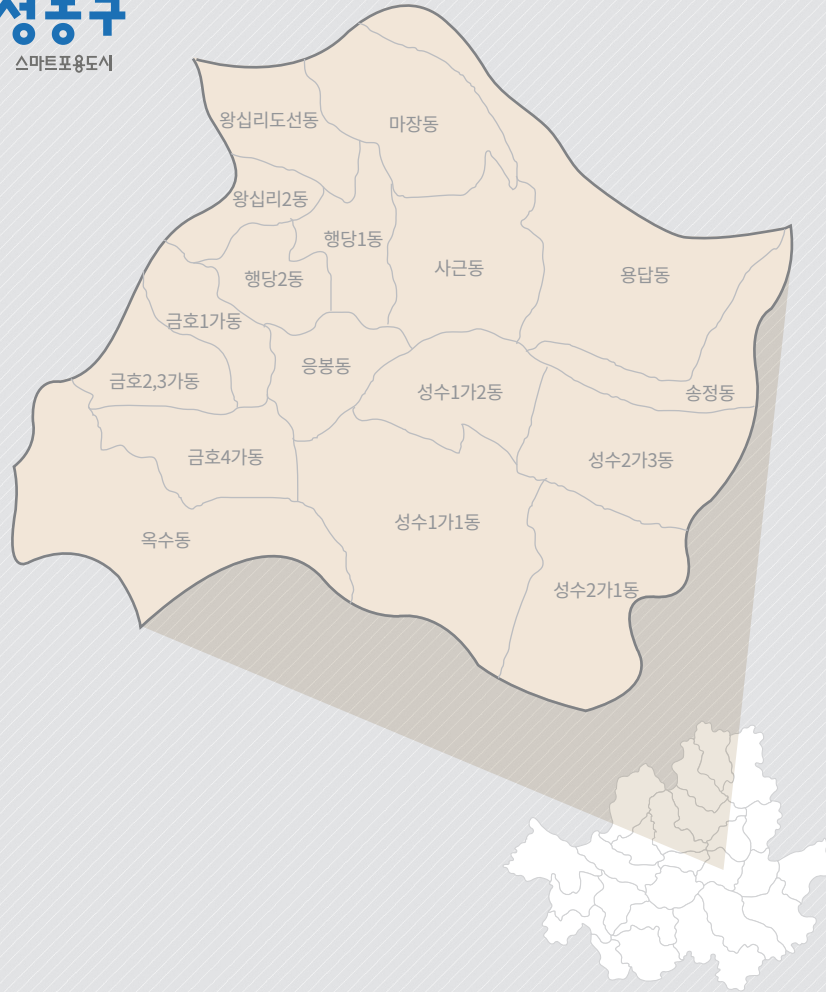
2017년에 구축된 플랫폼 사이트인 스타카토 H를 개편하여 콘텐츠의 홍보 및 판매 효율성을 높였

다. 메인 페이지 디자인과 메뉴를 변경했고 온라인 결제, 소셜로그인, 온라인 상품 등록 시스템 등 기능을 추가했다. 모바일 반응형 웹, 크로스 브라우징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높였다.



다소 복잡한 추진체제로 인해 사업 실행의 효율성과 집행 속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홍보와 마케팅이 필수적인 사업 성격에 비해 가용 투입 자원이 적었는데, 향후 사업 모델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홍대 앞 유입층을 넘어 새로운 소비층 확대를 위한 연구와 적극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3년간의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사업으로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 기초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동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하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의 슬로건은 ‘소셜패션 모델 정립’이다. 소셜패션(Social Fashion)은 지역 패션산업에 관련된 사회적경제 주체들(봉제 소공인, 패션 디자이너, 유통전문가 등)이 상호 협동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패션을 말한다.

성동구는 오랫동안 의류, 신발 제조업이 활발했지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휘둘리고 있다. 낮은 임금공로, 인력수급의 불균형, 저부가가치 구조 등은 영세 소공인들의 기반을 위협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소공인간의 협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성동구 특구사업단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성동구 소공인들이 사업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첫째, 소공인 협동조합을 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의 수평적 협업화를 통해 지역 소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이다. 둘째, 패션산업과 관련해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과정을 협업구조, 이른바 ‘수직적 협업화’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것이다. 셋째, 공유 공간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쇼핑몰 연계 사업이다. 이에 따라 특구사업단은 소공인 협동 활성화, 소셜패션 상품기획 및 개발,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등 단계별로 예비특구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목적

성동 패션산업 현장 기반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성동 패션산업 재생을 위한 ‘소셜패션 모델’ 정립

성동 패션산업의 협동모델을 통한 ‘소셜패션 마케팅’ 개발

사업성과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4**개



사업체 조직화
150개



공유공간
6개



소셜패션 상품개발
9종

연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소셜패션 인프라 및 기반 조성	•소공인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및 협동화 준비 (35개 사업체) •디자인, 제조, 마케팅 •소셜패션 개발 및 지원 체계 구축 : 산학디자인센터 및 공동 창작공간 조성 •온라인 등 소셜패션 유통 플랫폼 개설 •토털 패션 공동판매장 운영
2017년	소셜패션 모델 정립	•생산, 디자인 영역 소셜패션 상품개발 및 협동화(100개 사업체) •공동 창작실 운영 : 상품 기획 및 개발(50종), 청년디자이너(협동조합) 연계 프로젝트
2018년	소셜패션 마케팅	•소셜패션 상품 브랜드화 •소셜패션 유통 활성화 •소셜패션 디자인 이미지 구축

성동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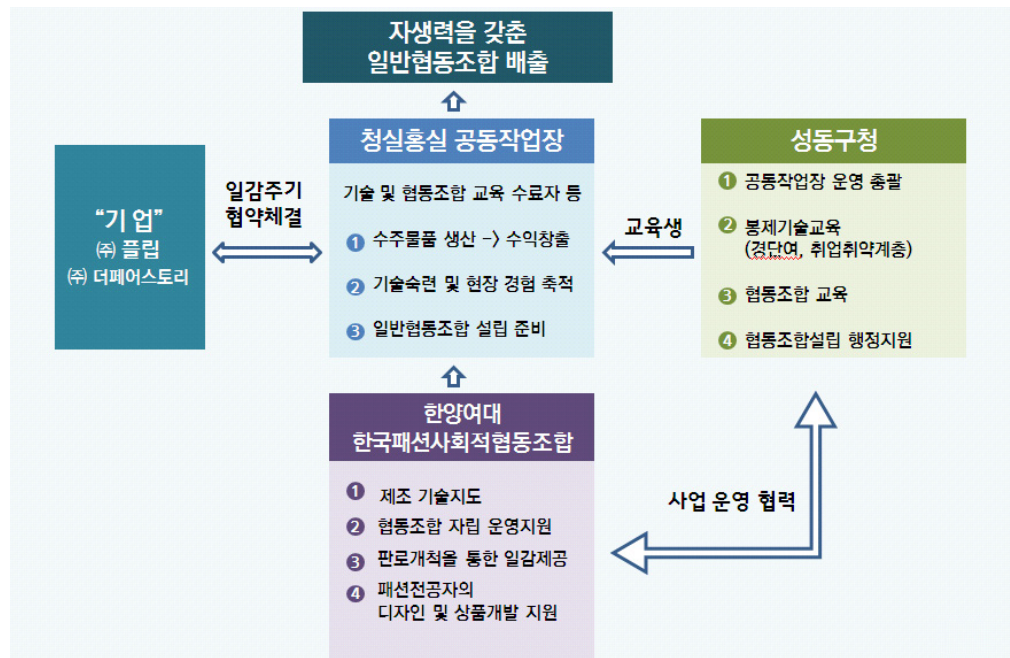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역할
1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김동준	추진단장(전체 사업 자문)
2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사장	신만수	분과위원장(전체사업 진행자문)
3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부대표	이상경	전시행사 협조, 신진디자이너 발굴, 온라인플랫폼·오프라인 매장자문
4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조용우	영업 및 공방연계, 소공인 연계 등

5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처장	이정표	산학협력연계 -산학디자인센터 운영 및 연계
6	한양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홍선옥	산학디자인센터 운영 및 연계
7	뚝도기획단 서울시 문화도시정책	단장, 자문위원	김윤희	클러스트 공모디자이너 발굴 양성자 연계
8	전)오산대 제화패션산업과 케이토탈패션 디자인전문학원	교수, 교무처장	차남수	창작공간 및 오프라인 숍 자문/클러스트 공모 디자이너 자문
9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사무총장	김민지	전시 행사 장소 협조
10	소셜벤처 마리몬드	대표	윤홍조	지역연계 및 사회적 가치 자문
11	한어패럴 /(사)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교육	대표, 교육원장	한상미	경력단절여성(생산자협동조합) 기술교육
12	더블크루	대표	강주완	플랫폼 자문
13	후즈백	대표	송호준	플랫폼, 창작공간, 오프라인숍 자문
14	성동구청	팀장	김종선 등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업무

패션산업 현장 기반 ‘소셜패션’ 생태계 만들기

성동구는 서울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두 번째로 많으며 그 중에서도 의류, 신발 제조업(패션분야)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다. 패션 분야 영세 소공인들은 기술력이 입증돼 있지만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의 솔루션이 부재한 상황이다.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 사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할 ‘종합상사’ 형태의 지원 모델이 필요한 배경이다. 2012년 이후 이 지역에 사회혁신단체, 문화예술인의 유입이 늘었지만 지역 산업, 기존 주체들과 협업하는 사례가 부족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구사업단은 의류·봉제, 수제화 등 지역산업의 협업화 및 집적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관산학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청년 소셜벤처와 패션산업을 결합해 ‘소셜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특구사업단 구성

2015년 9월 성동구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단이 발족했다. 지원조직, 전문위원회, 혁신그룹(소셜벤처) 등이 사업단에 참여했다.

조사·분석·연구

성동구의 의류·수제화 산업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수익창출형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소셜벤처 연계방안을 연구했다.

사업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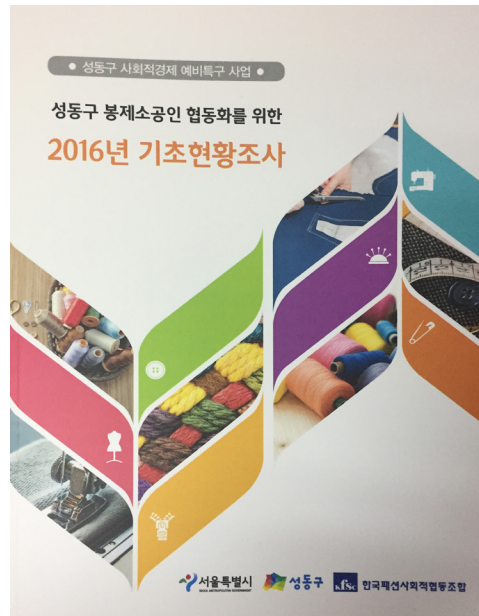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공론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셜패션 기능인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설명회, 본사업 3개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특구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마련했다.

주민참여 시범사업 추진

지역 봉제기술들과의 협업으로 마을공방을 설립하고 시범 운영했다. 거리패션쇼 등 소셜패션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했다.

패션소공인 조직화, 협동조합 모델 창출

본사업 1년차의 목표는 ‘소셜패션’생태계 구축을 위해 당사자인 소공인들을 주축으로 협동조합 모델(생산자, 사업자 협동조합)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성동구 봉제 소공인 협동화를 위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산학디자인센터와 연계해 소셜패션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했다.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특구사업단은 2016년 5월~8월 소공인 협동조합(사업자, 생산자) 설립을 지원했다. 우선 5월 26일 봉제소공인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소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3개월간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 교육, 사례탐방 등 사업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고, 2016년 11월 4일 나눔봉제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생산자협동조합 설립도 결실을 맺어 11월 10일 (가칭)물레마실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패션봉제 소공인들의 작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도 열렸다. 11월 17일~19일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소셜패션 가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지역 소공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소셜패션 디자이너와 소공인들의 협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주민들과 만났다.



봉제소공인 만남의 날 행사



성동봉제협동조합 발기인 발족식

소공인 역량강화

소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회계, 노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사업자협동조합, 소공인을 대상으로 5차례 교육이 이뤄졌고, 12월 29일에는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경영 미니 워크숍이 열리기도 했다.



소셜패션 산학디자인센터 및 공동창작 공간 조성

사회혁신을 위한 산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10월 31일 소셜패션 산학디자인센터와 공동창작 공간이 문을 열었다.



소셜패션 유통 플랫폼 개설

성동 의류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B2B 플랫폼(www.kfsc.asia)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소셜패션에 대한 인식확산과 민·관·산·학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등)도 개설했다.



성동 패션산업 재생을 위한 '소셜패션 모델' 정립

본사업 2년차에는 수평적 협업화와 수직적 협업화를 통한 소셜패션 모델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평적 협업화는 1년차에 설립된 사업자 및 생산자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수직적 협업화는 소셜패션 상품을 기획, 개발해 소공인과 연계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런 협업화 프로젝트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쇼핑몰과 연계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소셜패션 공동창작실을 확대하고 공동매장 설립도 추진했다.

봉제산업의 폐원단 및 잉여원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소셜벤처, 청년 디자이너, 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과 협동 시스템(기획, 디자인, 생산, 디자인, 유통)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자원절약,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했다.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로 소셜패션 제품을 개발하고 소셜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소공인 협동화 사업개발

소공인 제조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 일자리와 일감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규모화, 협업화, 효율화를 바탕으로 소공인 협동사업을 발굴했다.

우선 100개 사업체를 조직화해 일감을 연결하며 규모화를 꾀했다.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폐원단을 이용한 재활용(Re-Up-Cycling) 상품을 개발했다. 사업자협동조합과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턴제를 도입했다.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시설,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협동사업 효율화도 일궜다.

본사업 1년차에 이어 2년차에도 소공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법률, 특허, 기술, 협동, 경영, 디자인)도 진행되었다.

소셜패션 상품 기획, 개발

소셜패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창작공간에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 양성했다. 이렇게 발굴된 디자이너는 지역 소공인과의 협업으로 소셜패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 신진 디자이너 발굴

소셜패션 소공인과 디자이너의 협업 프로젝트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했다. 성수 소셜패션쇼 입상자 20명 중 7명이 디자이너 협동조합(아트그라운드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봉제소공인들과 소셜패션 상품을 기획했다.



2) 소셜 디자이너 양성(공동창작공간 운영)

2016년 조성된 공동창작공간에서 청년혁신 소셜 디자이너를 양성했다. 패션디자인뿐 아니라 마케팅, 기술훈련,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 디자이너도 봉제 소공인과 협업해 폐원단을 활용한 재활용(Re-Up-Cycling) 상품을 개발하고, 어르신 손뜨개, 소상인 앞치마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 소셜패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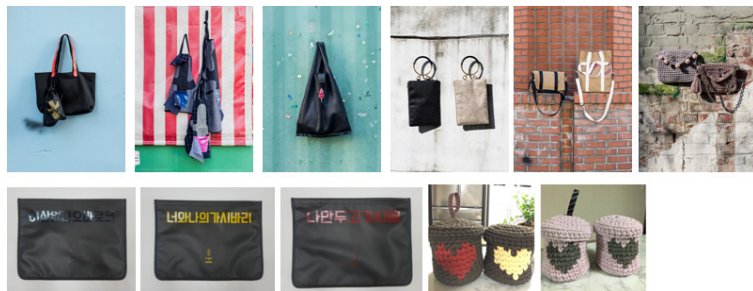
① 지역재생과 연계한 소셜패션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주제	SSFP(성수소셜패션프로젝트) 지역상생 프로젝트 '성수동을 위한 바느질'
목적	SSFP 브랜드 및 제품 런칭, 편집숍(온오프라인) 운영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컨셉	디자인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소셜패션, 사업자와 상생 수익모델을 연구하는 소셜패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년도: SSFP길 선정, 로컬프로젝트 진행 2차년도: 지역 확장 및 비즈니스 모델(디자인 제휴 등) 구축, 기제작 디자인의 B2C세일즈 런칭 3차년도 이후: 성수동 대표 프로젝트로 성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이너 6팀 [art ground 4팀 + 외부초청 2팀] 참여 상점 6곳(높은집 종가 산골장어, 송희네 건어물, 행당 자연식품, 김가네 삼겹살, 먹거리장터, 만나식당)에 맞춤형 유니폼 및 패턴제작



② 잉여원단 재활용을 활용한 제품 디자인 기획

주제	잉여원단 디자인 디렉팅 및 제품개발 기획
목적	SSFP 콜라보 브랜드 런칭
컨셉	성동구 봉제공장에서 수거한 잉여원단을 활용하여 신진 디자이너들과 재활용 리빙 제품개발을 통한 윤리적 패션 브랜드 기획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 디자이너 모집 및 윤리적 패션 교육 • 잉여원단을 활용한 제품 기획 • 소셜 펀딩을 통한 시장반응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 9팀(art ground 5팀 + 외부초청 4팀) 디렉팅 • 7개 콜라보 브랜드 런칭, 13개 잉여원단 리빙 아이템 개발, 20종 디자인 디렉팅 • 펀딩을 통한 1차 제품 판매 완료



③ 사회문제형 제품개발 기획

주제	사회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셜패션 제품개발 기획
목적	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수 있는 SSFP 브랜드 제품 기획
컨셉	디자인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을 위한 친환경 병원 유니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 아이템 선정 •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한 제품 개발 기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병원 환자복의 문제점, 해결책으로서 친환경 병원 환자복 선정 • 펀딩을 통한 1차 제품 판매 완료

④ 잉여원단을 활용한 소셜패션 상품개발

주제	잉여원단을 활용한 소셜패션 상품개발
목적	소셜벤처×청년디자이너×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등 협업을 통한 잉여원단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지속가능한 사업 모색, 협업모델 제시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프로젝트 브랜드명	SSFP × RightRoute
개발 제품	라이트루트(RightRoute) 7종, 청년 디자이너 7종 개발
타겟 및 시즌	10~30대 / 2017 F/W 시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7월~12월 진행 • 제품 기획, 원단 조사(잉여원단 제공), 제품 디자인, 샘플 및 패턴 디자인 수정 및 보완, 제품 제작 (생산자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품질관리, 제품 촬영, 포토샵 작업 (촬영 사진), 제품 콘텐츠 작업, 입점사 업로드, 제품 포장, 제품 판매, 고객 관리 및 배송, SNS 마케팅

⑤ 힐링 데이웨어, 기능성 트레이닝웨어 소셜패션 상품개발

주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 인식확산을 위한 기능성 트레이닝복
목표	힐링 컨셉으로 데이웨어와 트레이닝웨어를 겸한 상품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진윤 패션디자이너와 협업 • 총 9종 트레이닝복(남, 여, 아동 각 3종) 개발 디자인 일러스트, 플랫 스케치, 로고배치 및 컬러, 소재 선택, 패턴 및 제품 제작

4) 소셜패션 브랜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패션 제품 브랜딩으로 소셜패션 이미지 확립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성동구 소셜패션 모델 구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내용	잉여원단 활용, 지역재생 및 사회문제 해결형 소셜패션 이미지를 확립하고 스토리가 있는 제품홍보를 통해 소셜패션 브랜드 구축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 아이덴티티 리뉴얼/ 웹사이트 디자인/ 전시 디자인 • 제품 어플리케이션 : 제품 1차 패키지/ 발송용 2차 패키지/ 제품 거래 서식류/ 인포그래픽/ 촬영 • 매뉴얼 및 패키지 제작 : 마케팅 전략 수립/ 판매 관련 디자인 매뉴얼 제작/ 제품 1차 판매분 패키지 제작



협업 프로젝트

구분	내용
폐원단 및 잉여원단 활용,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기획 및 개발 회의(4회) • 잉여 원단 및 짜투리 원단을 이용한 제품 개발(30종) • 행당시장상인회, 금호고등학교, 물레마실협동조합, 나눔봉제협동조합,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 아트그라운드협동조합, 라잇루트, 대지를위한바느질 등 8곳 참여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샘플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장터에 입찰 공모를 위한 샘플 기획 및 개발 • 작업복, 근무복, 가방 등 샘플 기획 개발 • 재활용(Re-Up-Cycling) 상품개발(1건)
작가와 콜라보, 지역사회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르신들 소일거리 제공(손뜨개 행주, 앞치마 등) • 공공미술 설치 협업작업 • 금호고등학교 패션디자인 동아리 운영(16회)
프리마켓(상시) 및 박람회(2건)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협동조합박람회 참가(5개 기업) • 2017년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소셜패션존 운영) • 지역축제 및 장터 참가(상시)
소셜패션 전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2017 성수소셜패션프로젝트, 프로토타이핑-소셜패션 사회적가치를 디자인하다 •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21일~22일, 성수동 에스팩토리 • 한국패션회적협동조합, 나눔봉제협동조합,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 꿈한타래협동조합, 물레마실협동조합, 아트그라운드협동조합, 라잇루트, 뗏다할매, 금호고등학교 봉제동아리, 금호고등학교 학부모 봉제 모임 등 참가
소셜패션 패션봉제인 네트워크 공동기획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2017 성동 패션봉제인의 밤 •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21일, 왕십리 레노스블랑쉬



온·오프라인라인 유통 활성화

소셜패션 커뮤니티와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보강하고, 공공입찰을 통한 B2B 판로를 개척했다. 소셜패션 전시판매, 바자회, 체험 및 견학, 패션쇼 등을 개최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셜패션 알리기에도 힘을 쏟았다.



특구사업 연계 성과

특구사업단은 서울시 혁신형 사업으로 정기적인 폐원단 처리 및 잉여원단 수거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잉여원단 절감으로 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진한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에도 참여해 손뜨개 공공디자인, 노(인)-청(년) 창작 상품을 개발했다.



협동모델을 통한 ‘소셜패션 마케팅’

본사업 3년차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소공인 협동을 활성화해 10개 이상의 사업체와 함께 공동 브랜드, 및 상품개발, 유통 등 소셜패션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클라우드 펀딩,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창출을 꾀했다. 또한 소셜패션 디자인센터를 가동해 디자인 개발을 활성화하고 품질인증제를 준비했다.

소공인 협동 활성화

2018년 2월 8일 성동지역 패션봉제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해 패션봉제 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신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나눔봉제협동조합, 물레마실 협동조합,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 등 소공인 협동조합과 함께 소셜패션 브랜드와 연계된 신상품을 개발해 데님, 반팔티, 에코백 및 소품 등 18종을 선보였다.

소공인들의 협동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50개 사업체를 조직화했다. 또한 사업자협동조합 2곳, 생산자협동조합 4곳이 참여해 2018년 7월 사단법인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공인 협업이 한층 규모화되었고, 성동구와 함께 봉제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소공인과 청년 디자이너간 협업도 이어져 후드티, 티셔츠, 원피스 등 샘플을 개발했다. 청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창업 비즈니스 스쿨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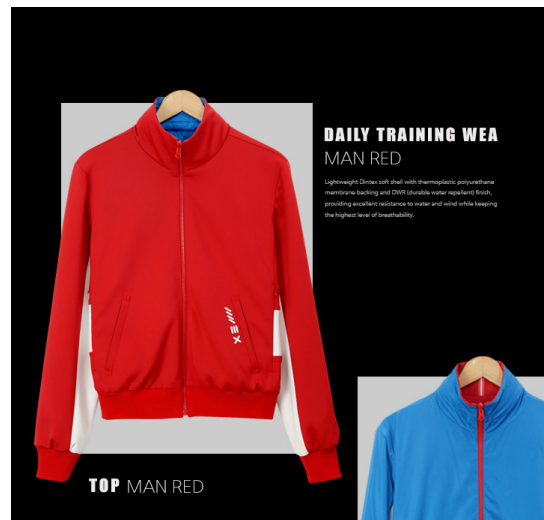
2017년에 이어 폐원단 수거, 처리 사업도 지속되었다. 특히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성동지역 자활센터,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어 폐원단 수거, 처리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민관협력 폐원단 위탁처리 시범사업에 100개 업체가 참여 연 960톤의 폐원단을 처리했다.





특화(주력) 상품의 개발 및 확산

2017년 개발된 소셜패션 프로젝트 상품을 정비해 주요품목과 타깃을 설정하고 판촉활동을 통해 유통을 확대했다.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최상급 다자녀와 연계해 트레이닝복 3종을 개발, 보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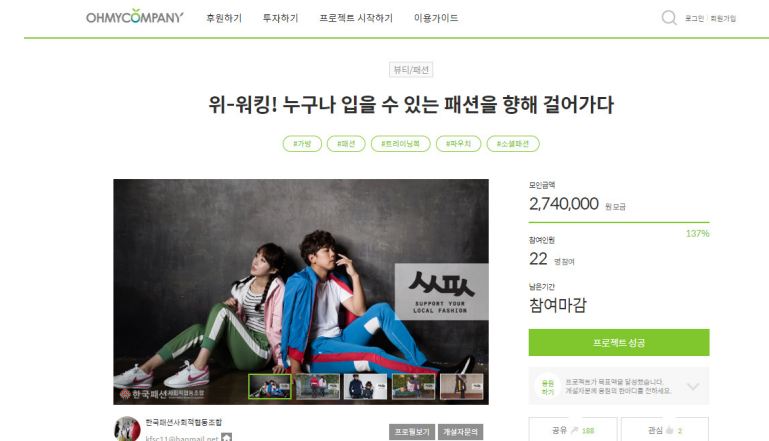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유통 연계

소셜패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 1차 목표를 달성했다. 이를 계기로 소셜패션 상품개발과 펀딩을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었다.

공공분야 진출을 위한 활동도 적극 펼쳤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미니 전시회’를 열어 소셜패션 및 상품을 소개했고, 청년 디자이너 창업 지원사업으로 상설장터 참여 기회를 10회 이상(상암 DDMC, 신촌현대백화점 팝업마켓, 썸데이페스티벌, 성동구청, 홍대블루케잡마켓, 덕수궁 페어, 성수소이플리마켓, 양재AT센터 등) 제공했다.

이밖에 온라인 마케팅 위해 스마트 브로슈어,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했다.



소셜패션 디자인 거점화

청년 디자이너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 공간으로서 ‘디자이너 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소셜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봉제소공인과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청년디자이너 비즈니스 스쿨을 열어 소공인 기업 연계 프로그램, 팝업 장터,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이 스쿨에는 10명이 참여해 이중 6명이 창업했다.



소셜패션 디자인 연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소셜패션 사회화’를 위한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했다. 소셜패션 지역화 전략, 특구사업의 주체인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의 향후 역할 등을 모색했다.



패션봉제 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민관협력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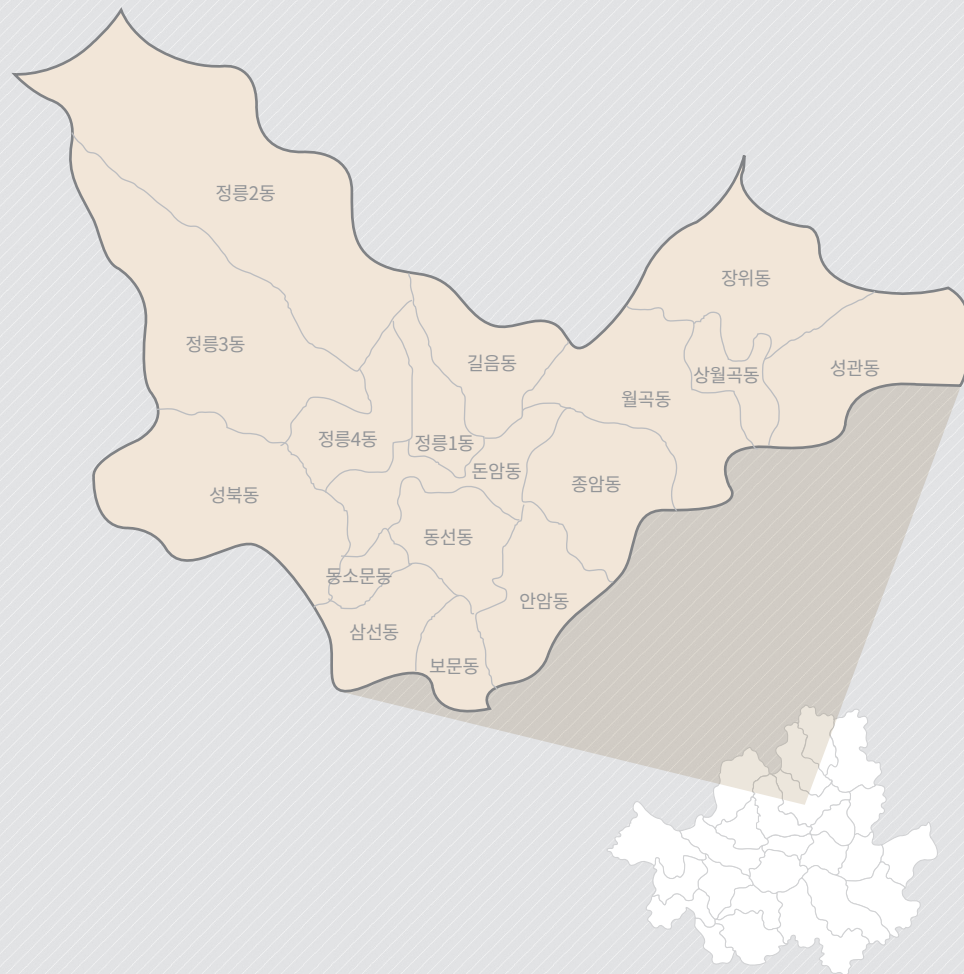
- 봉제 소공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4개 협동조합, 약 150명 조합원)하고, 민관협력으로 공동 공간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 공동 상품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가 정착했고, 소공인 협동조합들의 연합체인 (사)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사회적경제 특구를 통한 패션봉제 산업의 문제해결 방안 마련

- 기존과 차별화된 봉제 소공인의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 능력을 높여, 공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 모델을 만들었다.
- 청년 디자이너들이 지역 패션봉제인과의 연계 사업 경험을 쌓았고, 협업화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혔다.

소셜패션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소셜패션의 의미와 인식 확산

- 소셜패션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크라우드펀딩,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 소셜패션에 걸맞는 협업시스템을 만들었고, 소셜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성북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해 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지역관리기업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 발굴과 조직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마을사회적경제 융합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요약된다.

집수리 시범사업,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마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관리기업을 설립, 거점 시설 확보 및 운영,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수탁사업 등을 수행했다. 특히 장위동과 그 주변지역 도시재생지의 노후주택과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 높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유아동·청소년 돌봄 시설문제와 주민의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한 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목적

지역관리기업 수익모델 개발 및 설립·운영

돌봄시설 운영 및 지역관리기업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 발굴과 조직화

지역관리기업 사업 참여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지원

사업성과



초등틈새돌봄시설
이용 연인원 **12,000명**



마을학교 참여 연인원
1,500명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2곳**



사업일자리 창출
10명

연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집수리 시범사업•초등 틈새돌봄 시범사업•마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집수리 교실 운영•초등틈새돌봄시설 1개소 운영•청소년마을학교 설치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관리기업 설립•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준비•주차문제 개선 사업•거리환경관리 시범사업•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지역주체 발굴 및 조직화•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지원 (장위동 사회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관리기업 설립(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성북나눔돌봄센터, (주)두꺼비하우징, 장위도시재생주민협의체 5 곳 참여)•일자리 창출: 10명(특구 전담인력 2인, 초등틈새돌봄교실 돌봄교사 3인,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 5인)•협동조합 설립 2건(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 늘숨협동조합)•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연인원 996명)•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연인원 5,713명)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관리기업 자생력 강화•지역관리기업 수익사업 모델 설계 및 운영•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관리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선정•성북구 도시재생 네트워크 회의 개최 (2회)•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김종업 건축문화의 집 7월 개관•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교사 2인, 프로그램 강사 1인 일자리 창출)•도시재생 솔루션 구축: 공공기관(성북구청, SH, LH)과 도시재생 연관 업무협약 체결•소형 공공임대주택 유휴주차면 활용 공영주차장 확보•장위 도시재생사업 홍보상품 개발

성북구 사회적경제 특구사업단(2018년 기준)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양현준	단장, 사업총괄, 대외협력
2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원재철	부단장, 실무총괄, 도시환경관리팀장
3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김유리	성북구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협력 연계
4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박학용	CRC 추진지원팀장, 장위 도시재생사업 연계
5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공동대표	송민기	사회서비스팀장
6	성북나눔돌봄센터협동조합	이사장	유영창	사회서비스팀
7	성북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효삼	도시환경관리팀

주민기반 지역거점 도시재생모델 개발

성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뉴타운사업지구가 많은 지역으로, 재개발에 따른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해왔다. 이중 장위 13구역은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되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으로, 주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다솔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돌봄 문제가 불거졌고, 꿈나무 급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시설도 없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다문화지원센터가 없어 언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청소년들에게서 비행과 탈선 등 부적응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장위동 및 인접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모델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구사업단 구성 및 지역조사

2015년 9월 특구사업단이 발족했고, 9월~10월 장위동 지역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정리하고 수요를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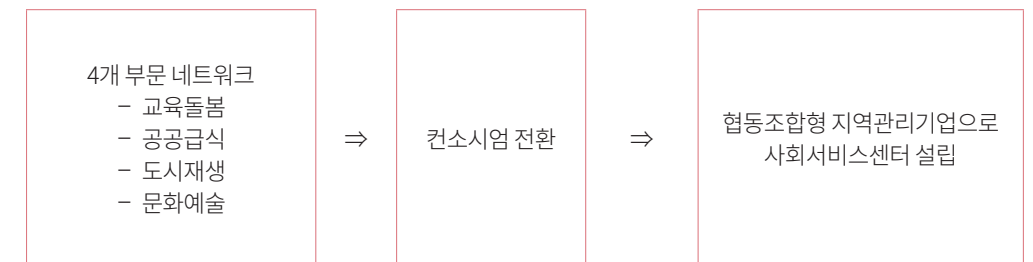
사업계획 수립

교육돌봄, 공공급식,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4개 부문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범사업 운영 및 특구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안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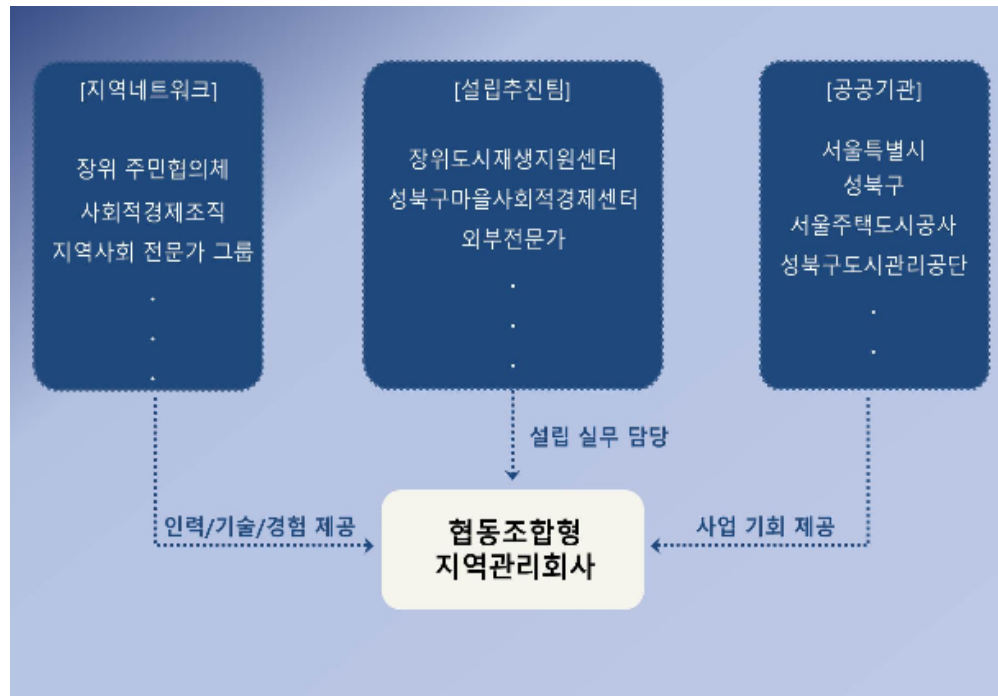
지역관리기업,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준비

돌봄시설, 급식시설, 제조업지원센터, 주택개보수 상담 및 시공, 시설·환경관리,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지역관리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로서 사회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관리기업 설립 준비, 수익모델 창출

본사업 1년차는 도시재생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지역관리기업) 설립 준비와 수익모델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관리기업 운영주체 발굴을 위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역의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향후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협동조합형 지역관리기업 추진 체계도

지역관리기업 설립 추진 및 운영주체 발굴

특구사업단은 도시재생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을 추진했다.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마을기업 형태로 지역관리기

업(CRC)을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팀을 구성했다.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준비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1차 거버넌스 운영위원회(7.19)를 열어 장위동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위탁운영에 대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줄 것을 성북구에 요청했다. 성북구 교통지도와 주차관리팀을 면담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사례(은평구 역촌동 역마을협동조합)를 탐방했다. 2차 거버넌스 운영위원회(12. 26)에서 장위동 주차문제 협의 TFT 구성, 김종업 건축문화의 집 운영 및 프로그램 TFT 구성에 합의했다.

사업주체 발굴을 위해 집수리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집수리사업자 네트워크도 구성했다.



집수리 시범사업

주민교육 및 홍보,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관리기업 설립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2016년 9월 29일~12월 15일 집수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튼튼한 장위마을 만들기'사업, 도시재생 희망지 집수리 교실과 연계해 두

차례 집수리교실을 운영했다. 총 4회 강좌가 진행되었고, 19명이 참여했다. 집수리교실 참여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해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8가구에 집수리비용을 지원했다.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1년간 지원해준 지역재생리빙랩(일명 우리이웃집 2호점)에 초등틈새돌봄시설을 개설하고 7월~12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평일 오후 2시~6시 운영해 연인원 1,171명(일평균 9.8명)이 이용했다.

시범사업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향후 특구사업 종료 후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학교도 운영했다. 방과후 마을학교와 주민대상 마을학교가 결합된 형태였다.

시기	내용
9월 8일	추석특집 프로그램 ‘할머니의 이야기보따리/ 송편 만들기’(아동 16명, 학부모 10명 참석)
10월 1일	장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가팀 공궐 탐방
10월 29일	마을학교 1차 준비모임
10월~11월	창의력 개발 보드게임(총 5회)
11월	손뜨개 강좌 ‘넥워머 만들기’(2회 진행, 주민 10명 참여)
11월~12월	그림책과 함께 미술심리(총 15회)
12월 7일	마을학교 2차 준비모임
12월 17일	2016 연말 가족마당 개최(학부모 18명, 초등학교생 21명, 유아 11명 참석)



수익모델을 ‘도시재생 솔루션’으로 재정립

2017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뉴딜’이 새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발표되면서, 향후 보다 활성화 될 도시재생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성북구 특구사업단은 지역관리기업의 사업 범위를 장위동에서 성북구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처음부터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고(‘장위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으로), 수익모델 역시 장위동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주차관리 사업은 ‘저층주거지 주차문제 조사 및 개선 사업’ 및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으로, 거리청소 사업은 ‘저층주거지 거리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체계화 한 ‘도시재생 솔루션’으로 수익 모델을 재정립했다.

지역관리기업인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장위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성북지역자활센터, (주)두꺼비하우징(장위동에 사회주택 건립) 등 2016년까지 성북구 사회적경제특구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직들이 대거 참여해 성북구 사회적경제특구의 사업 역량과 지역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또 마을학교와 초등틈새돌봄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 조직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으로 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지역 주체 형성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관리기업(CRC) 설립

특구사업단은 4차례의 준비모임과 워크숍, 발기인 회의 등을 거쳐 2017년 9월 26일 지역관리기업인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11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관] 제2조(목적)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한 성북구 도시재생 문제의 해결과 이에 참여하는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관리기업 수익모델 개발

1) 장위동 주차문제 개선 사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의 주차현황을 조사하고, 문제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막연하게 ‘심각하다’,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해 온 지역의 주차문제를 ‘화재 위험’이라는 생명과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 문제로 수치화, 시각화하여 주차문제 개선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 소형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 모델 개발

소형공공임대주택 유휴주차면 공영화로 지역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청소, 복지 등 입주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지역 상생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3) 공동주택 관리

SH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하월곡동 창조인빌(138세대), 장위동 사회주택 ‘오라차 하우스’ 등 장위동과 주변 지역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의 입주민 관리, 커뮤니티 공간 관리, 시설관리, 청소 등의 통합적인 관리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사회주택 입주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구사업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오라차 하우스’입주민들은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공모사업 참여, 초등틈새돌봄교실 학습 지도 참여, 유휴주차면 공영화(4면)로 주차문제 개선에 참여했다.



4)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 운영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하나인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형성했다. 청소년 문화공간 기획회의를 통해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조성 예정인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지역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 중학교 교사 등의 의견을 모아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해 장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 운영을 통해 지역 학부모, 학교 선생님, 아동청소년플래너,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 단체, 예술인 등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 관련 주체를 발굴했다.

5)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활용방안 연구

지역 문화자원이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지닌 가치를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미래유산,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으로 선정될 수 있는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향후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6) 거리환경관리 시범사업

거리환경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주민간담회를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자 등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서비스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했다. 시범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 취약지점을 파악하고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교육도 8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토대를 형성했다.



7)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1년차에 이어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놀이와 돌봄을 결합한 대안적인 방과후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를 확인하고 돌봄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또한 마을학교를 운영해 초등틈새돌봄 시설 운영에 참여할 지역 주체를 발굴, 육성했다. 총 39개 프로그램을 운영(89회차)했고, 연인원 1,079명이 참여했다.

연번	사업명	진행 프로그램	회차	참여 학생	참여 학부모 및 주민	연인원
1	찾아가는 토요 진로마을학교	11개	11회	180명	-	180명
2	주민 제안 프로그램	13개	38회	140명	150명	290명
3	주민문화활동	7개	11회	184명	99명	283명
4	마을공동체 교육	8개	29회	68명	250명	318명
합계		39개	89회	572명	499명	1,071명



지역관리기업 기반 조성

1)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형성의 주체로 육성했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해 장위1동 거리환경개선시범사업단,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 수경재배-협동조합 체험교실, 늘숨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물품(펜, 다이어리, 비닐파일)도 제작, 배포했다.

2)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지원

마을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발굴한 지역의 주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관리기업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성북지역자활센터의 수공예사업단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해 교육과 설립을 지원했다(늘숨협동조합). 성북구내에서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인 학부모마을교사네트워크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하여 교육과 설립을 지원했다(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공간을 조성해 장위1동 거리환경개선시범사업단의 거점 사무실, 장위동 마을학교 프로그램(함께자라다팀, 장곡맘스팀),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공모사업(장곡돼지팀, 반딧불이팀),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교육 및 홍보 장소(장위1동 거리환경개선시범사업단, 늘숨협동조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개발 지원으로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의 품앗이 마을교사 입문과정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은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학부모마을교사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사업으로서 마을교사의 발굴·역량강화가 목적이었다.



지역관리기업(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2017년 중 예정되었던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복합복지문화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하월곡동 창조인빌 등의 준공 일정이 2018년으로 늦춰졌고, 거주자우선주차 등의 수익원 확보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해 지역관리기업의 초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특구사업단은 본사업 3년차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관리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돌봄돌봄사업을 포함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미니태양광 설치 및 관리, 장위동 마을여행 사업으로 확대했다.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거리한 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솔루션을 구축했다.

지역관리기업 자생력강화

2017년 설립한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이 지역관리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에 선정되었다.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홈페이지(www.sbcrc.net), 도시재생 교육 영상, 성북구 도시재생 마을 스탬프 투어 홍보물 등을 제작했다.



지역관리기업 수익모델 개발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①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수탁운영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와 특구사업단에서 주최하고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주관한 기획강좌(총 5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수탁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장위 도시재생사업에서 차지하는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향후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내용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청소년 문화공간 수탁 운영 준비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을 활성화해 공간 구성에 대한 주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간 구성안으로 정리해 성북구에 제출했다. 장위동 청소년 건축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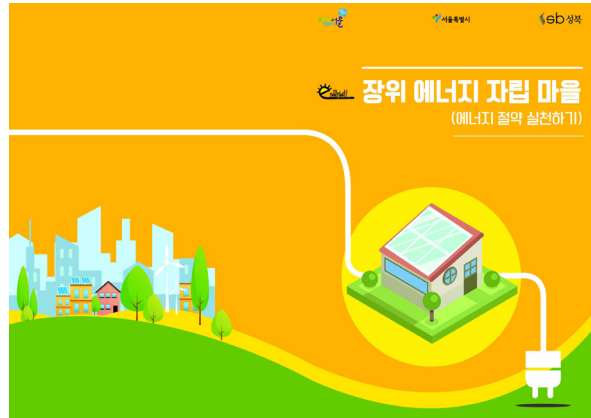


2) 커뮤니티 비즈니스

① 미니태양광 설치, 관리 사업

안정적인 수익원 개발을 위해 장위동 주민공모사업 참여팀 '태양의 후예'에서 진행하는 미니태

양광 설치, 관리 사업을 활성화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대안에너지 체험 학습장 등 연계 사업을 지원했다.



② 장위동 마을여행 사업

장위동 마을해설사 모임이 주도하는 마을 탐방, 마을 여행 사업을 활성화했다. 이를 위해 마을해설사 유니폼과 현수막 등 홍보물, 장위동 마을여행 콘텐츠 모음집 <장위마을 이야기>를 제작했다.



③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초등틈새돌봄(별별재미난교실) 공간이 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수탁하며 한층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8년 8월 10일 리동네키움센터 별별재미난교실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3) 도시재생 솔루션 구축

①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지역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휴 주차면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주택관리 서비스를 대가로 제공했다. 장위동에서 성북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소형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단을 운영했다. 2017년 10월부터 특구사업단, 장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시범사업단을 운영해 온 성북지역자활센터는 2019년에도 장위 도시재생 지역에서 시범사업단 운영을 지속하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지역의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점 관리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성북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장위1동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을 운영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점 파악 및 지속 관리, 장위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취약지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

1)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2018년 10월 17일~11월 28일 ‘수경재배-협동조합 체험 교실’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에 별별재미난교실 지하에 조성한 수경재배 체험학습장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장위1동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과 성북지역자활센터 나무공방사업단 참가 주민들이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도 실시(8회)했다.



별별재미난교실 지하에 조성된 수경재배 체험학습장

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과 ‘장위 꿈틀 진로 마을학교’를 진행했고, 늘숨협동조합과 함께 장위 도시재생 사업 홍보 상품을 제작했다.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융합 사업 모델 개발

- 장위 도시재생 지역과 유사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 가능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융합 사업 모델 개발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 장위동 초동틈새돌봄교실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으로 이어져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은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내년도에도 시범사업단을 계속 운영하면서 모델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교사 3인, 시범사업단 5인 등 총 8인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 특구 사업 지원으로 설립된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과 늘숨협동조합이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도시재생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사업기반 마련

-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은 지역관리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향후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으므로 2019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은 올해 장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활성화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를 통해 조합원이 11명에서 37명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업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장위동 청년 1인을 고용했고, 마을여행 콘텐츠 제작, 도시재생 교육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소액이지만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 그러나 기대했던 장위 도시재생 거점시설 준공이 연기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여타 사업 계획도 축소, 지연되면서 거점시설 시범 운영 등 핵심 사업 기반 형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장위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완공되는 2019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활발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관리기업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정책보고서

미래를 품은 3.5년

2015.07-2018.12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홈페이지 www.sehub.net

블로그 sehub.blog.me

전화 02-353-3553 팩스 02-38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편집/디자인 (주)버리커뮤니케이션
